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느리게만 꾸준히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59 2015년 봄호



피 어 나 다 , 봄

겨우내 웅크려 있던 꽃망울이 툭, 피어납니다.
그 소리가 신호가 되어
잠들어 있던 생명이 하나둘씩 깨어납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기운을 마음속 가득 채우면
울봄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셔보세요.
당신에게도 봄의 생기가 피어날 테니까요.



Innovation Nexen

- 04 온에어 1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창녕공장 방문
- 06 온에어 2 눈길도 안전하게! 스노우타이어 체험 교육
- 08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새 소식
- 12 글로벌 넥센 미국 법인 이모저모
- 14 나눔 그리고 공유 (창)금형파트 사우들의 사랑 나누기
- 18 팀 스토리 전략마케팅팀 사우들의 수상한 회식
- 22 멘토 앤 멘티 OE개발2팀 김성훈 · 정수용 사우의 제주, 혼저옵서예!
- 26 안전 가이드 글로벌환경안전팀의 직업성 요통 예방하기
- 28 카 앤 타이어 내 차량 주행 성능 알아보기
- 32 넥센 프렌즈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

Special Nexen



표지 이야기
양산, 청다오, 창녕공장에 이어 체코공장 건설까지,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1등 기업을 향해 나아갑니다. 승차감, 소음 성능, 마일리지 성능까지 탁월한 엔페라 AU5가 그 우직한 걸음을 함께합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5년 봄호 통권 59호
발행인 이현봉
발행일 2015년 4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경영관리팀 박수현 (055-370-5283)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노은주, 장윤희, 이예슬, 이재면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교정 정수완
표지 일러스트 김수민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키움프린팅

Joyful Nexen

- 54 포토 콘테스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넥센인을 소개합니다!
- 58 행복 나들이 (창)재료파트 정대호 조장의 가족 나들이
- 62 1박 2일 여행 내딛는 발끝마다 꽃내음 가득, 충남 청양
- 68 미각 예찬 사우 추천 전국 맛집 '달콤한 봄, 달달한 카페'
- 72 좋은 아빠 프로젝트 우리 아이 장난감 똑똑하게 고르기
- 74 클릭 재테크 적재적소 보험 상식
- 78 건강 대백과 잘못된 의학 상식에 관한 오해 혹은 진실
- 80 탐나는도다 그루밍족 스타일 보고서
- 82 에코 라이프 1+1=0 노트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창녕공장 방문

넥센타이어, 유럽 진출의 길을 더욱 탄탄히 다지다



소보트카 총리, 창녕공장 방문

지난 2월 27일,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을 방문해 상호 발전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보트카 총리는 한-체코 수교 25주년을 맞아 60여 명의 주요 각료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24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특히 소보트카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 부울경 기업 방문을 희망해 이목이 집중됐다. 2001년 밀로시 제만 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체코 정상 방한인 데다, 외국 정상이 정상회담 외 타 지역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MOU 1주년, 상호 발전 및 협력 방안 논의

강병중 회장 이하 넥센타이어 임직원의 환영을 받으며 창녕공장에 들어선 소보트카 총리는 전자 방명록에 서명을 마치고 회의실로 이동, 창녕공장과 체코공장에 대한 브리핑을 경청하고 상호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소보트카 총리의 창녕공장 방문은 넥센타이어의 체코 신공장 건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2월 체코 대사 관저에서 MOU를 체결했으며, 이어 6월 강병중 회장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신공장 건설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체코 자테츠 지역 약 65만㎡(20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진행되는 이번 신공장 건설 계획은 세계 타이어 최대 소비 시장 중 한 곳인 유럽 시장의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체코 신공장은 창녕공장의 건설 및 운영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건설할 예정이며, 투자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건설에 들어가고 2018년 첫 가동에 들어간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 1,200만 개 이상 규모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체코 신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 확대를 꾀하고, 현재 공급 중인 폭스바겐, 피아트, 스코다, 세아트 등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체코 정부와 넥센타이어가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넥센타이어의 미래 성장 동력인 창녕공장을 통해 최첨단 체코공장을 미리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녕공장 통해 넥센타이어의 기술력 선보여

오찬 후 시작된 공장 투어는 압연공정에서부터 준비공정과 압출공정, 성형공정, 가류공정, 검사공정, 완제품 창고를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응용 부사장의 가이드로 각 공정을 유심히 둘러보던 소보트카 총리는 특히 모든 제조공정이 자동화 되어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장을 모두 둘러본 후 소보트카 총리는 “이번 창녕공장 투어를 통해 넥센타이어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며 “자테츠 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날 소보트카 총리를 비롯한 체코 정부 관계자들의 창녕공장 방문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넥센타이어가 유럽 지역에 더욱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⑩



스노우타이어 성능 체험 교육

눈길에서도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동계 스노우타이어
체험 교육,
강원도 평창에서 실시

넥센타이어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45일간 스노우타이어 성능 평가를 진행했다. OE 타이어 성능 승인, RE 타이어 성능 육성, 이외 제품 및 재료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이 평가는 연 2회 실시된다. 스노우타이어의 주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겨울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여름에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뉴질랜드에서 진행한다. 특히 타이어 운송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는 하계 평가는 이른 봄부터 준비하는데 올해 7월에 있을 평가를 위해 이미 실차평가팀의 준비가 한창이다.



겨울철 강원도 평창에서 스노우타이어에 대한 모든 평가가 완료되면 개발 및 영업부문의 사우를 초청해 1박 2일간 성능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 때에는 동일한 조건 하에 타이어 패턴, 컴파운드를 달리하여 그에 따른 영향도를 파악하고, 올시즌 타이어와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을 번갈아 운전해 두 타이어의 확연한 성능 차이를 비교한다. 자신이 연구·개발한 타이어를 직접 테스트하는 사우들은 새벽 시간대 진행되는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없이 열중이다.

평가 결과 토대로 타이어 성능 향상 도모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사우들은 “이 평가를 통해 스노우타이어와 일반 타이어의 성능을 확연히 비교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일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원 선회 구간에서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도로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하지만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가속, 제동, 선회 등 차량 가동에 더욱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스노우타이어 체험 교육은 타이어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이다.

이러한 체험 교육은 스노우타이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넥센타이어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타이어 패턴과 컴파운드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향후 제품 연구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RE개발2팀 최항목 연구원은 “이번 교육에서 여러 타이어 제품을 직접 타고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많은 사우가 교육에 참여해 실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16년 연속 주주총회 개최 1호 진기록

넥센타이어가 지난 2월 17일 양산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지난해 경영 성과를 주주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로써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0년 사명 변경 이후 시작된 '주총 1호 개최' 진기록(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기준)을 16년째 이어가며 '주총 1호'를 고유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의 이 같은 최초 주총 개최는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맞춰 경영 성과를 주주들에게 빠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넥센타이어의 201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7,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7.8% 늘어난 2,086억 원, 영업이익률 11.9%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세계 경기 위축과 업체 간 경쟁 심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품질 및 제품력 상승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 확대,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에 따른 결과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보고, 그리고 사외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현금배당은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75원, 우선주 80원을 각각 결의해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넥센타이어 이현봉 부회장은 "올해를 '양적·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정하고, 국내외 유통망의 확대 및 현지 주도의 차별화된 전략 전개, 품질 향상과 고객 지향의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우수 대리점 초청 '넥센 골든 타이어 어워즈' 개최

넥센타이어가 지난 1월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수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2015 넥센 골든 타이어 어워즈'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넥센 골든 타이어 어워즈'는 넥센타이어 대리점 중 지난해 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주와 배우자를 초청해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비롯해 올해 회사의 주요 영업 정책과 경영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우수 대리점에 대한 시상과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라산 등정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회사와 대리점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도 마련됐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사장은 "지난해 침체

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노력해주신 대리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고객 만족 서비스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CA(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사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FCA(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사의 피아트 자동차와 신차용 타이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생산되고 있는 '500X' 모델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500X'는 피아트에서 출시한 최초의 크로스오버형 차량(CUV)으로 지난해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그 모습이 처음 공개되어 한층 커진 외형에 기존 500시리즈의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급 계약으로 넥센타이어 'CP671' 패턴의 17인치 제품이 이탈리아 멜피공장에서 생산되는 북미 시장 판매용 차량에 장착되고 있다.

'CP671'은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마일리



지 성능과 향상된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새로이 설계된 차량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성능도 고루 갖췄으며, 이미 크라이슬러 중형 세단인 '200'과 '올

뉴 200' 차량에 공급되어 그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13년부터 '500L' 모델에도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매월 8일 '넥센타이어 데이' 지정 대고객 행사 실시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매월 8일을 '넥센타이어 데이'로 지정하고, 대고객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데이'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타이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로, 타이어 두 개를 겹친 모양인 숫자 8과 연계하여 고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매월 '넥센타이어 데이'인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전국 타이어테크에서 무상으로 타이어 마모도, 공기압 등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타이어 자가 체크

방법, 타이어 수명을 늘리는 운전 습관 등의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또 타이어 무상 점검을 받은 고객 중 추천을 통해 주유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와 타이어 교체 시 할인 등의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정기 점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자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넥센타이어 데이를 통해 타이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상 점검과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안전 운전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마케팅 통한 오세아니아 지역 공략 강화

넥센타이어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호주 풋볼 팀 'Geelong cats', 뉴질랜드 럭비 팀 'Chiefs'와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현지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Geelong cats' 팀은 호주 풋볼 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구단으로 AFL 리그 시작 이래 3번의 우승을 거뒀고, 'Chiefs' 팀은 뉴질랜드 럭비 리그에서 2012·2013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홈

구장에 LED 광고판을 비롯해 스크롤 배너, 스타디움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넥센'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미



국에서의 프로야구 후원과 유럽 지역의 프로축구 빅 리그 광고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두 팀과의 스폰서십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미엄 엔페라 제품 '新 명품보증제도' 시행



넥센타이어가 프리미엄 등급의 엔페라 제품에 '명작 新 명품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명작 新 명품보증제도'는 넥센타이어 엔페라 AU5와 엔페라 RU5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이다. 2015년 말까지 시행되고 보증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다.

이번 '新 명품보증제도'는 넥센타이어의 품질,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행하

는 제도로 2008년 N7000 명품보증제도와 2014년 윈터타이어 명품보증제도에 이어 3번째 시행되는 보증제도다. 넥센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엔페라는 높은 품질력 및 우수한 승차감, 정숙성 등으로 각종 자동차 동호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프리미엄 상품군의 마모 성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반해 엔페라 AU5는 마모지수가 560으로 국내 프리미엄 상품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주재원들이 전하는

미국법인 이모저모

2015년은 미국 법인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주재원들은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법인의 새로운 시작

2014년 미국 법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인장, 주재원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도 새로 채용한 것이다. 이처럼 인력 보강으로 조직을 탄탄하게 재정비하는 데 공을 들인 만큼 미국 법인은 더 높은 도약을 준비 중이다. 생산 물량의 증가와 중국 관세 등 미국 시장의 변화를 토대로 미국 시장에서 타이어 연간 500만 개 이상의 판매량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사활이 걸린 만큼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목표로 직원들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법인 직원들은 작년 말,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연말 파티나 각종 기념일을 챙기는 편이다. 개인의 경력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사 옮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행사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끼리만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직원의 가족, 친구까지 초대하여 연말 행사를 함께한다. 주재원들은 이러한 행사에 스스럼없이 동참하며 현지 직원들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생활

미국 법인은 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 바에 있다. 이곳은 겨울엔 영상 5~10℃로 시원하고 한여름에는 40℃까지 치솟을 정도로 덥지만, 습하지 않고 그들은 시원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캘리포니아는 관광객을 위한 아울렛 쇼핑몰이 많이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니언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또한 롱비치, 산타 모니카, 말리부 등 내로라하는 해안 관광지가 모여 있고 1년 내내 다채로운 이벤트가 가득해 가족과 나들이하기에도 좋다.

미국법인 사무실 주변에 거주하는 동양인은 거의 중국, 대만, 홍콩 사람이라 중국 관련 가게가 많은데 그래서인지 얼핏 보면 미국이 아닌 중국 같기도 하다. 미국 법인 사무실이 있는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와도 인접해 타코나 나초 가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LA 한인타운과 가까워 한국 음식점이 많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이 생각날 때마다 이곳을 찾으면 향수를 달랠 수 있다. 주재원들이 미국으로 부임하면 가장 먼저 미국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에서 능숙하게 운전했다고 미국 운전 면허 시험을 만만하게 봤다가는 쉽게 낙방할 수 있다. 한국 운전 면허증을 미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체해주는 일부 주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필기는 물론 실기 시험도 다시 봐야 한다. 운전 면허증을 따려면 생소한 미국 도로교통법을 익히고, 잘 들리지 않는 영어도 배우면서 도로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주재원 자녀들의 미국 학교 입학 역시 절차가 까다롭다. 실생활에서 처음 쓰는 영어 때문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이렇듯 환경적, 언어적으로 한국과 현저히 다른 미국이지만 그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업무에 이바지할 수 있다.⑩

(창)금형파트 사우들의 사랑 나누기

친구들, 소원을 말해봐!

낙동강에 부서지듯 해가 비치던 화창한 어느 평일 오후, 대구 강정고령보에 창녕공장 금형파트 사우들이 뒀다. 뇌성마비 장애인과 함께 웃음꽃 만발한 이들의 따뜻했던 시간을 따라가보자.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세상의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사랑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함께할 곳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는 (창)금형파트 사우들, 약속 시간보다도 훨씬 일찍 도착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파트에서 작게 모금도 하면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요, 이번 봉사활동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들이 할 일은 상록주간보호센터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사회화 활동을 돕는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활동 범위와 대화 상대가 한정되어 있어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 그렇기에 함께 산책하고, 마음을 열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드디어 기다리던 친구들이 도착했다. 한 명 한 명 차에서 내리는 여섯 친구들. 박해식 조장과 환서 씨,

강호정 사우와 덕한 씨, 박광묵 사우와 현웅 씨, 박세용 사우와 동연 씨, 오경훈 사우와 해임 씨, 정인혁 사우와 민용 씨가 오늘의 짝꿍이다. 혹시나 친구들이 다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보호센터 담당 선생님께서 휠체어를 밀고 끄는 법부터 배운다.

“여기엔 의사소통이 되는 친구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간혹 소통이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담당 선생님의 말씀에 사우들은 좀 더 편하게 휠체어를 밀기 시작한다. 언제 자기소개를 마쳤는지 어느새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창)금형파트 사우들, 터프한 외모 안에 숨겨진 부드러움이 친구들의 마음을 살살 녹이는 모양이다.



함께 걸을까, 함께 들을까

혹시나 턱에 바퀴가 걸릴까 조심조심 휠체어를 밀며 디아크 문화관 안으로 들어섰다. 찬란한 조명과 끝없이 펼쳐진 조형물을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여러 스크린 장치가 눈길을 끈다.

‘우와~’ 소리와 함께 짝꿍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체험하고 싶은 섹션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디지털 연못의 물고기를 구경하며 전시관 이곳저곳을 탐색하기에 여념이 없다.

어? 그런데 갑자기 전시장 어디에선가 노랫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박해식 조장이 휴대전화로 가요를 틀고는 환서 씨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다. 센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친구들보다 소통이 힘들다던 환서 씨. 평소 규칙적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금세 언짢아하는데, 순간 뭔가 생각과 달랐던지 잔뜩 뿔이 났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박해식 조장이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마음을 다독이자 금세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환서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한대요. 특히 조관우의 ‘늬’를 좋아하고, 트로트도 좋아한다네요.”

길지 않은 시간의 교감이었지만 각자의 짝꿍들과 어찌나 쿵짝이 잘 맞는지, 친구들은 더 이상 선생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 순간만큼은 친형, 친오빠가 된 듯 그들만의 연결 고리가 생긴 것처럼 보였다.



어찌 보면 평범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일지 몰라도,
사우들과 친구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으리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전시관을 둘러본 후 향한 카페. 각자 자기 짝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뭐 마시고 싶어?”, “오! 나도 나도~” 하며 서로의 취향을 맞춰보기도 하고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준비한 초콜릿을 직접 까주기도 한다. 특히 평소 잘 웃지 않는다는 해임 씨도 오경훈 사우의 유머에 오늘날만큼은 박장대소다.

해임 씨가 좋아하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느라 데이터를 다 써버린 오경훈 사우도, 덩달아 데이터를 모조리 털어버린 박세용 사우도, 뜨거운 음료를 식히느라 여념이 없던 강호정 사우도 싱글벙글 웃음이 뱅뱅 터진다. 사우들을 지켜보던 박성근 파트장의 입가에도 미소가 가득하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봉사 제대로 하는지 감독한다고 따라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진심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이 친구들 모두 다시 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직원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재활 치료 때문에 헤어져야 할 시간. 짝꿍들의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하다. 오늘 나들이가 일주일 만의 외출이라던 현웅 씨를 보내는 박광묵 사우는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중 정인혁 사우가 민용 씨 휠체어에 과자를 가득 담은 봉지를 빠지지 않도록 넣어준다. “민용이 효자네. 이 과자 어머니 드린다고 챙기네요. 여기 잘 넣어뒀어. 집에 가서 어머니랑 맛있게 먹어!”

차에 타는 친구들 뒷모습을 향해 끝까지 손을 흔들던 (창)금형파트 사우들.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어찌 보면 평범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일지 몰라도, 사우들과 친구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으리라. 오늘 함께한 친구들의 기억 속에 (창)금형파트 사우들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본다. ²⁰

전략마케팅팀 사우들의 연극 관람 수상한 회식

바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략마케팅팀이 출동했다.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팀원들. 분명 회식인데 술잔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따라가보았다.



유쾌 바이러스를 몰고 다니는 그들

소극장 멀리에서도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 전략마케팅팀이 왔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평일, 그것도 해가 중천에 뜬 낮에 단체로 외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특별한 회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그들. 아이처럼 신난 모습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극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다. "나중에 메신저로 보내줘", "다들 잘 나왔는데?"라며 사진을 확인하면서도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사우들은 그렇다 쳐도 소년처럼 서로에게 살가운 남자 사우들의 모습이 조금은 의아하다.

"오히려 남자 사우들이 맛집이나 카페를 더 잘 안다니까요? 음주 가무보다는 주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회식을 자주 하죠."

평소 직급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분위기 덕분인지 다 같이 모인 사우들은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웠다. 특히 <TV유치원 하나 둘 셋> 아역 배우 출신이라는 정태환 대리와 미모를 자랑하는 강윤 사우의 모델 같은 포즈에 다들 손뼉 치며 인정하는 눈치다.

"자, 자, 연극 보기 전에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연극을 보기 직전, 단체 사진을 제안하는 손상현 팀장의 한마디에 다들 웅기종기 모여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는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고 관람에 앞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소책자를 꼼꼼히 살피는 팀원들. 연극을 100% 즐기기 위해 사전 정보를 체크하는 모습이 마냥 해맑게 웃던 조금 전과는 딴판이다. 즐길 땐 즐기고 집중할 땐 집중하는 모습이 넥센인답다.

넥센타이어의 홍보대사, 전략마케팅팀

뭉쳤다 하면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지만 일할 때만큼은 똑 부러지는 전략마케팅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 최우선 목표는 광고, 스포츠마케팅, 전시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넥센타이어를 알리는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팀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프리미어리그에도

광고 스폰서십을 하는 등 굵직한 스포츠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적인 모터쇼와 타이어

박람회에서도 넥센타이어를 홍보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올해는 더 폭발적인 업무 성과를 내겠다는 팀원들에게서 자신만만함이 느껴졌다. 이런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전략마케팅팀만의 특별한 노력이 따랐다. 재작년 말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인재를 보강하며 인력 관리에 힘써온 것이다. 손상현 팀장을 비롯한 새 직원들을 영입해 비로소 완전체로 거듭났다고.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손 팀장의 유머러스한 성격도 한몫했다. 손 팀장의 밝은 성격이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쳐 모두가 활달한 성격으로 바뀌었을 정도란다. 분위기가 좋으니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막힘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좋고 잘 통한다 해도 업무상 견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법. 그럴 때는

맛있는 음식을 곁들인 충분한 대화가 해결책이라고 한다. 다른 부서 사우들이 회식할 때

전략마케팅팀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라니 이만하면 넥센타이어의 맛집 탐방대가 불려도 좋겠다.

덕분에 팀의 막내인 정다미 사우는 입사 후 살이 찘다며 살짝 걱정하기도 했다.

“늘어난 몸무게가 신경 쓰이지만 사보에 맛집 코너는 저희 팀에게 맡겨주세요! 맛 보장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회식, 우리만 해도 되나요?

전략마케팅팀을 기다리고 있는 연극은 〈수상한 흥신소〉.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는 남자와 억울한 사연을 가진 귀신들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여기에 약간은 어수룩한 남자 주인공과 까칠한 여자 고시생의 귀여운 러브 라인이 더해지면서 2010년 첫 공연 이후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짧지 않은 러닝타임에도 맨 앞줄에 앉아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준 전략마케팅팀. 덕분에 신이 난 배우가 팀원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강윤 사우는 여자 배우가 관객석을 향해 자신이 누구를 닮았느냐고 묻자 1초도 되지 않아 “한예슬!”이라고 외쳐 연극 티켓을 상품으로 받았다. 또한 남자 배우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이연주 대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봐 관객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모두 재미있는 장면에는 목젓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고 감동 어린 장면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극에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연극이 끝나자 사우들은 땀까지 흘리며 최고의 연기를 펼친 배우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정말 재미있고 이색적인 회식이었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알찬 회식해도 되나요? 다른 팀에게도 이런 문화회식을 추천하고 싶네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는 나수현 대리. 그녀의 말에 다들 공감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연극에 대해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맛집 투어’ 회식에는 자신 있으니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전략마케팅팀을 불러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었던 연극 덕에 특별한 회식 시간을 가진 사우들. 앞으로도 늘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넥센타이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길 바란다. ㉞

OE개발2팀 김성훈 · 정수용 사우의

1박 2일 제주, 혼저옵서예!

“제주도 가실래요?”

이번 호 ‘멘토 앤 멘티’ 코너에 기획안 하나가 스윽 들어왔다. OE개발2팀에서 날려 보낸 ‘1박 2일 제주 여행 계획서’. 날도 풀렸겠다, 여행 코스까지 짜 올린 기획안에 감동하며 김성훈 주임연구원, 정수용 연구원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볼까!

제주로 떠나기로 한 날 일기예보, ‘아침까지 눈 오고 잔뜩 흐림’. 혹여나 마음먹고 떠난 여행을 날씨가 망치진 않을까 하던 우려도 잠시,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맑은 해가 두 사우를 반긴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를 둘러보기 전 든든한 식사는 필수! 제주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고기국수를 찾아 나섰다. 아침부터 비행기를 타느라 출출했던지 김성훈 · 정수용 사우가 두툽한 돔베 고기를 송덩송덩 썰어 올린 고기국수를 단숨에 톡톡 해치운다. 두둑이 부른 배를 두드리며

본격적으로 제주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위해 출발. 처음으로 들른 곳은 제주항 부둣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지등대다. 언제 흐렸느냐는 듯 청명하게 푸른 하늘과 눈부시게 일렁이는 바다에 두 사우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와, 제주 바다는 또 다르네. 저기 크루즈 봐. 대단하대!”

평소 바다를 자주 찾다는 김성훈 사우도 넓게 펼쳐진 제주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얼굴을 세차게 때리는 바닷바람에 헤어스타일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 이까지 시릴 지경이지만 “바람도 많은 삼다도니까~”라며 경치 구경에 낮이 나갔다.

제주항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차로 지나는 곳곳마다 한순간도 놓치기 힘든 절경이 펼쳐진다. 뽕뽕 달리다가도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내려서 둘러보고, 잠시 앉았다 가기를 여러 번. 눈길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를 만끽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입춘도 지났건만 아직 눈 쌓인 곳이 많은 제주.





부산에서는 눈 구경이 힘들다며 소복하게 쌓인 길을 사박사박 걷고, 눈덩이를 데굴데굴 굴리며 아이들처럼 웃는다. 양옆으로 짝 펼쳐진 사려니숲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도 정답다. 각자 다른 곳으로 출장이 잦았던 터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오랜만이라고.

“김 선배가 평소에 좀 진지한 편이라 막 장난을 치면서 지내진 않아요. 하지만 술 한잔씩 하면서 속내를 나누죠. 한번은 같이 창녕 출장 갔다가 너무 힘들어 우포늪에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어요. 나란히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아, 너무 연인 같았나요? 으하하.”

김성훈 · 정수용 사우가 속한 OE개발2팀에서는 유럽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OE 타이어를 개발한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가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에서도 핸들을 마구 꺾기에 연비나 진동, 소음보다는 핸들링 성능에 가장 중점을 둔다.

“승차감이라는 건 감성적인 평가가 많아서 계측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 메이커가 요구하는 콘셉트와 해당 지역의 도로 특성에 맞춰서 개발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드라이빙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요.”

마음 가득 채운 제주로 심신 충전 완료

“우와. 장난 아니다! 와. 저기 좀 봐요.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오른 아부오름 정상에서 온갖 감탄사가 다 터져 나온다. 답답한 가슴이 한순간 뽕 뚫릴 정도로 시원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넓게 파인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은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김성훈 · 정수용 사우. 끈끈한 선후배 사이가 오랫동안 변치 않길 바란다.*

분화구, 그 가운데 영화 <이재수의 난> 촬영 때 동그렇게 심은 삼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오름을 걷다가, 앉았다, 뛰었다. 제주 하늘에 그간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린다. “유럽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회사에서 거는 기대도 크겠지요.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유럽 곳곳에서 보일 넥센타이어를 생각하면 뿌듯하죠.” 일몰을 보며 커피 한잔하고 나니 어스새 저녁 식사 시간이다. 정수용 사우가 ‘갈 데가 있다’며 제주 흑돼지집으로 안내한다. 동기인 한인혁 사우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란다. 아들 동료가 왔다면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배려에 고기 맛이 더 꿀맛. 두 사우는 한입 가득 고기 먹으랴. 어머니께 한인혁 사우의 소식을 전하랴 정신이 없다. 이튿날, 성산일출봉 옆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광치기해안으로 달렸다. 그러나 두껍게 낀 구름 너머의 해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다. 두 사우는 어제 날씨 행운을 다 쓴 것 같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것도 잠시, 제주 토박이 맛집의 보말성게미역국과 성게비빔밥, 해안도로를 따라 나타나는 또 다른 제주의 아름다움에 위안을 받는다. “멘토 앤 멘티에 수용 씨랑 신청하길 잘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멋진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네요. 양산으로 돌아가면 또 힘내서 일해야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은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김성훈 · 정수용 사우. 끈끈한 선후배 사이가 오랫동안 변치 않길, 이 둘의 시너지로 유럽 전역에서 넥센타이어가 힘차게 달릴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한다.¹⁴



넥센타이어의 중심은 허리에 있다! 직업성 요통 예방하기



작업을 오래 반복하면 능숙해지지만 요통에까지 익숙할 수는 없다. 무거운 짐, 잘못된 자세 등 허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현장에 항상 있다. 이에 글로벌환경안전팀은 넥센타이어 직원들의 직업성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 중이다.



직업성 요통이란?

중량물 취급, 허리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작업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요통을 뜻한다. 허리는 물리적 부담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이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서 있을 때도 허리가 무게중심 역할을 하므로 평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통은 다른 통증보다 노동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며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직업성 요통의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고 당기기, 작업 환경, 잘못된 작업 자세 등 다양하다. 특히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고 비틀기,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등의 반복 자세는 요통을 쉽게 유발한다.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량물 취급에 대한 인체공학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작업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관리도 함께 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허리가 바로 서는 작업 방법

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올바른 작업 방법 및 자세로 작업을 해야 직업성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

- 원활한 작업 흐름 및 안전한 운반 가능 통로 확보
-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바르게' 하여 중량물을 몸에 밀착시키는 올바른 들기 자세
- 취급하는 물건에 알맞은 손잡이 설치
- 중량물 이동 시 효율성 증가와 피로도 감소를 위해 높낮이 차 최소화
- 중량물에 대한 중량 및 무게중심을 표시하여 근로자의 주의도 향상



직업성 요통 예방을 위해 글로벌환경안전팀이 준비한 프로그램

-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공정별 유해 요인을 조사하여 설비 개선을 진행한다. 개선된 설비는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근골격계 부담이 적은 작업 방식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요통과 기타 통증 예방에 중점을 둔다.
- **전문의 상담 시행**
해마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를 조사하여 증상별로 상, 중, 하로 나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문진을 진행하며 통증 완화와 운동 처방도 병행한다.
- **물리치료실 운영**
직원의 통증 완화 및 근력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주 5일 운영 중이다. 전문 물리치료사의 검진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한다.㉞



넥센타이어의 인간공학적인 설비 개선 사례



사례1

허리 굽힘, 뒤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지양하기 위해 압출기 트레드(Tread) 적재 방식을 자동으로 변경 및 설치했다.



사례2

완제품 타이어를 들거나 옮길 때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 리프트(Lift)를 설치했다.

엑셀 프로그램과 간단한 계산으로 알아보는

내 차량의 주행 성능

첫째, 차량 정보 확인하기

주행 성능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다섯 가지.

이 정보들은 자신의 차량에 맞춰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정확한 결과를 위해 검색해보자.

1. 토크 성능 곡선

토크는 일종의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다. 그 힘을 엔진 rpm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토크 성능 곡선이라 한다. 여기서는 완성차 업체에서 제공하는 성능 곡선을 이용했다.

2. 단수별 기어비

변속기 내에서 서로 맞물리는 기어 중 큰 기어의 잇수를 작은 기어 잇수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기어비는 차량의 최고 속도와 최대 등판각을 먼저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후진	총감속
3.308	1.962	1.257	0.976	0.778	0.633	3.583	4.333

3. 타이어 사이즈

타이어 단면 폭, 편평비, 림 직경 및 타이어 외경, 동하중 반경(주행 중 타이어 반경)을 확인하자. 타이어 외경은 (폭×편평비×2)+(림 직경×25.4)로 계산할 수 있다. 동하중 반경은 타이어 공기압, 차량 무게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는 타이어 반경에서 0.01m를 뺀 값을 사용했다.

단면 폭(mm)	편평비(%)	림 직경(inch)	외경(m)	동하중 반경(m)
215	45	17	0.6253	0.3026

4. 전폭 및 전고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가로 폭이 가장 넓은 부분이 전폭(아웃사이드 미러 제외), 타이어 접지면에서 루프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를 전고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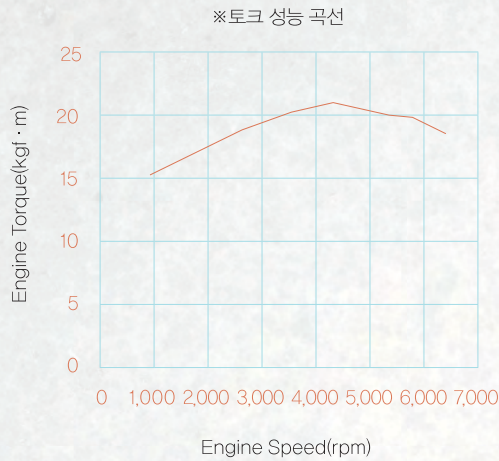
전폭(m)	전고(m)
1.78	1.47

5. 공차 중량 및 공기저항계수

공차 중량이란 사람이나 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 측정한 차의 무게고, 공기저항계수는 공기 흐름에 대항하는 계수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0.3~0.35 값을 사용하면 된다.

공차 중량(kg)	공기저항계수(Cd)
1300	0.3

파워풀한 엔진! 172 마력! 21 토크! 차량 카탈로그에 쓰인 문구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은 차를 살 때 마력이나 토크가 높은 차량을 선호한다. “수치가 높으면 성능이 좋다는 말인데, 그럼 내 차는 얼마나, 어떻게 좋은 걸까?”



둘째, 주행저항 파악하기

차량 성능을 분석하려면 주행저항이 필요하다. 주행저항은 차량 주행 시 받는 모든 저항을 뜻하며,

엔진으로부터 바퀴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결정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구름저항, 공기저항, 경사저항이다.

- 구름저항** : 차량이 노면을 굴러 이동할 때 받는 저항. 수막 현상과 같은 외적 변수는 생략하고, 변형이 없는 마른 아스팔트 노면으로 가정한다. 노면마찰계수는 0.01을, 차량 무게는 공차 중량에 탑승한 사람의 무게(ex.70kg)를 더해서 사용한다. **구름저항=노면마찰계수×차량 무게**
- 공기저항** :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력. 공기의 밀도나 투영 면적, 주행 속도, 차량 형상 등의 영향을 받으며, 여기에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공기 밀도: 대기 20℃에서 1.169, 투영 면적: 전폭×전고×0.8(근사치), 합성속도: 차량의 속도를 m/s 단위로 변환 후 계산) **공기저항=1/2×공기 밀도×투영 면적×공기저항계수×합성속도²**

- 경사저항** :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자동차의 무게중심 뒤쪽으로 작용하는 힘. 내리막길에서는 저항의 반대개념으로 작용한다. 경사저항은 차량 무게와 기울기에 영향을 받는다.

(기울기 10% : 수평거리 100m, 수직 높이 10m) **경사저항=차량 무게×기울기 각도**

지금까지 알아본 3가지 저항을 엑셀 표로 작성해보자. 그림과 같이 각 열에 속도 및 저항을 적고, 차량 속도는 0에서 250, 주행저항은 5% 단위로 0%부터 40%까지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자. 자신의 차에 맞게 값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차량 속도	구름저항	공기저항	주행저항0%	주행저항5%	주행저항10%	주행저항40%
0	13.7	0	13.7	82.1	149.95	521.53
1	13.7	0	13.7	82.1	149.95	521.53
2	13.7	0.01	13.71	82.11	149.96	521.54
...
249	13.7	179.00	192.70	261.10	328.95	700.53
250	13.7	180.44	194.14	262.54	330.39	701.97

Excel

엑셀 수식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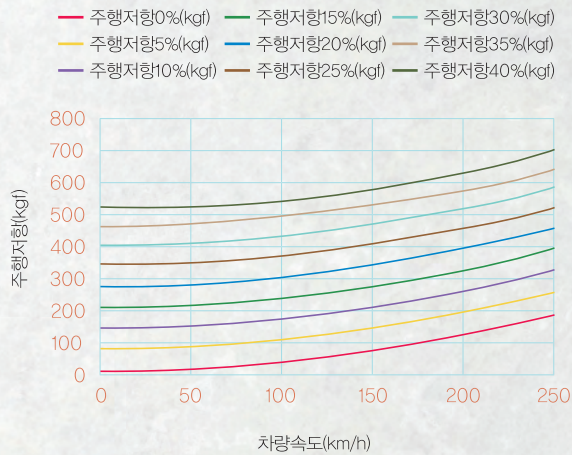
– 구름저항 : 차량 무게×노면마찰계수×COS(ATAN(0/100))

(COS(ATAN(0/100)) : 경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값 무시해도 무방하다.)

– 공기저항 : 0.5×공기 밀도×투영 면적×공기저항계수×(속도/3.6)²/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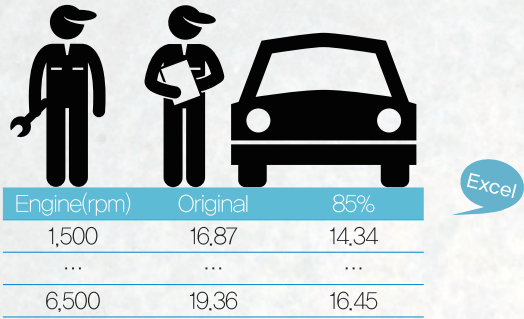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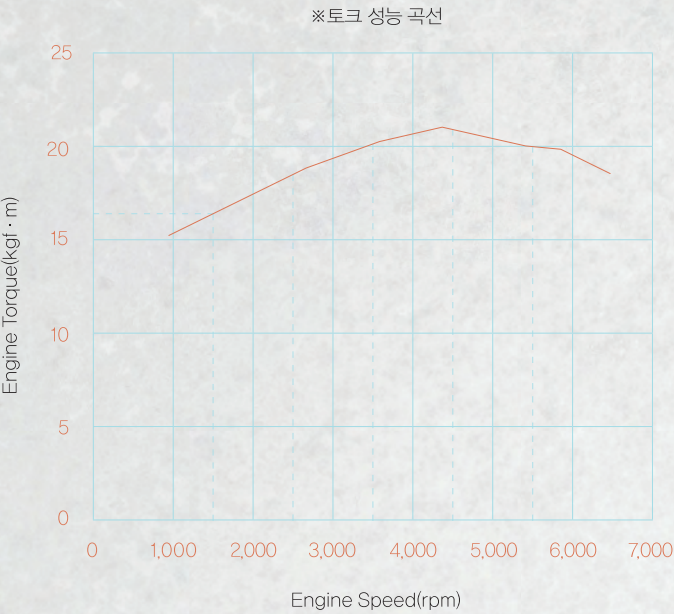
– 주행저항0% : 구름저항+공기저항+차량 무게×SIN(ATAN(0/100))

주행저항 0% 값은 수평면에서의 총 주행저항 값이 된다. 경사저항 값을 늘리고 싶을 땐 아크탄젠트(ATAN)값 뒤에 있는 0을 원하는 경사만큼 바꿔준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행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차량 성능 파악하기

먼저 처음에 찾았던 토크 성능 곡선 그래프를 500rpm 단위로 잘라 엑셀에 보기 쉽게 기재하자. 지금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크 성능 곡선은 완성차 업체가 제공한 자료로 실제 얼마만큼의 효율로 토크가 전달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85%의 효율로 계산하여 사용하려 한다. 차대동력계를 돌려 얻어낸 토크 곡선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1. 엔진 rpm/기어별 속도와 구동력 : 엔진 rpm은 500 단위로 1,500에서 6,500까지 기입 후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표로 작성한다. 수식에 있는 기어비 자리엔 1단부터 후진까지의 기어비를 넣는다.

속도=엔진 rpm×pi()×3.6×동하중 반경 / 30×기어비×종감속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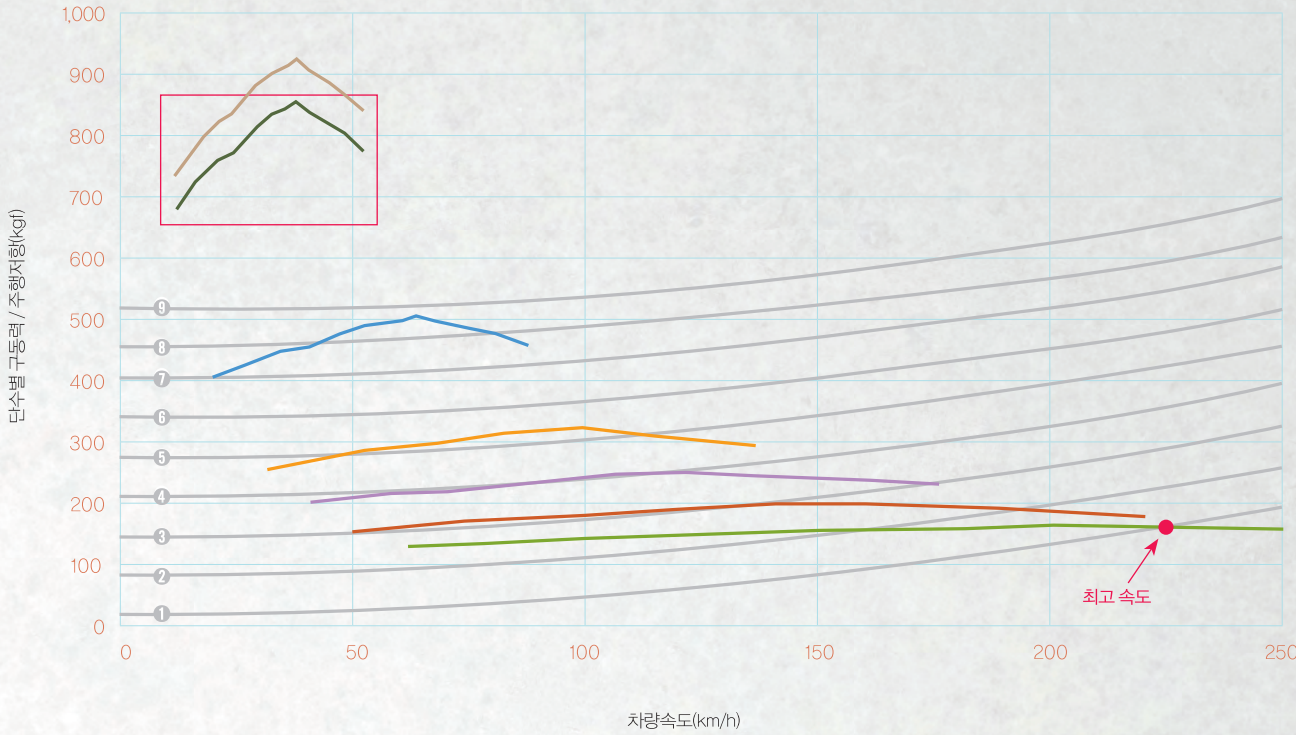
Engine(rpm)	속도 1단	속도 2단	속도 3단	속도 4단	속도 5단	속도 6단	속도 후진
1,500	11.94	20.13	31.42	40.47	50.77	62.40	11.94
...
6,500	51.74	87.24	136.16	175.37	220.00	270.39	51.74

구동력=엔진 rpm별 토크×종감속비×기어비 / 동하중 반경

Engine(rpm)	구동력 1단	구동력 2단	구동력 3단	구동력 4단	구동력 5단	구동력 6단	구동력 후진
1,500	679.01	402.72	258.01	200.34	159.69	129.93	735.45
...
6,500	779.19	462.14	296.08	229.89	183.25	149.10	843.96

위와 같이 정리하면 각 기어 단수에서의 엔진 rpm별 차량 속도와 구동력을 알 수 있다. 엔진 rpm으로 속도를 계산하면 6단 기어로 27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행할 수는 없다. 실제 주행가능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주행저항 그래프 위에 rpm별 속도(x축)와 구동력(y축) 데이터를 추가해보자.

- ① 주행저항0%(kgf)
② 주행저항5%(kgf)
③ 주행저항10%(kgf)
- ④ 주행저항15%(kgf)
⑤ 주행저항20%(kgf)
⑥ 주행저항25%(kgf)
- ⑦ 주행저항30%(kgf)
⑧ 주행저항35%(kgf)
⑨ 주행저항40%(kgf)
- 구동력 1단
구동력 2단
구동력 3단
- 구동력 4단
구동력 5단
구동력 6단
- 구동력 후진



2. 최고 속도 : 평지의 주행저항 곡선과 6단 구동력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최고 속도 지점이다. 샘플 차량은 평지에서 약 225km/h의 속도를 낼 수 있다(구동력이 주행저항 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가속할 수 없다).

3. 최대 등판 각도 : 1단 구동력 곡선은 경사 40% 주행저항 곡선보다 위에 위치한다. 즉, 이 차량이 경사 40% 이상의 길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행저항 곡선보다 구동력 곡선이 위에 있을 경우를 여유 구동력이라고 하고 이는 가속이나 더 높은 경사를 오를 때 사용된다.

지금까지 차량의 주행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샘플로 사용한 차량은 최고 속도 225km/h, 최대 등판 각도 4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론적인 분석이기에 실제 주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 차의 정보와 성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1. 공학적인 내용과 이론, 기타 단위 변환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절약과 줄임 방식을 위해 생략했습니다.
- 2. 분석에 활용한 샘플 차량은 2.0 Nu GDI 엔진, 6단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i30 차량입니다.
- 3. 본 글과 관련한 문의는 글쓴이에게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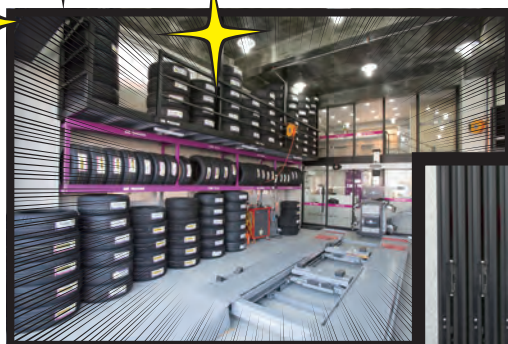
실차평가팀 김남웅 ken@nexentire.co.kr



넥세니 대리점 방문기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

작년 11월 오픈한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 해광기업의 영업 노하우와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이 만나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는 신예 지점으로 거듭났다.



어서 오세요!
2015 넥센 골든 타이어 어워즈 최우수 대리점인 해광기업의 노하우로 설립된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직원

안녕하세요?
해광기업과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한옥·이지혜입니다. 저희는 매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요. 거래처 관리부터 물건 납품은 물론 영업과 마케팅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한옥

대표
이지혜

과장
김영범

안녕하세요~
김영범 과장입니다. 일명 '영업의 신'이라 불리죠. 고객님께 넥센타이어를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계약은 없다!'는 각오로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팀장
민진기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를 맡고 있는 민진기 팀장입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 속상했던 손님들도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작은 수리까지 꼼꼼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니까요!



소장
김진권

안녕하세요!
김영범 과장과 영업 콤비를 이루고 있는 김진권 소장입니다. 무거운 타이어도 두 어깨에 척척 짊어지면 문제없습니다. 찻사계 트랙에 싣고 고객님 앞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장미희 사원입니다. 저는 해광기업과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의 경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입출고 재고 관리와 오픈 마켓 관리까지. 오늘도 바쁘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사원
장미희



회의 중

아침 회의가 끝났으니
블로그 관리 좀 해볼까?
오늘은 지난번 타이어 교체
사례를 소개해야겠다.

고객과
꿈임없이 소통
하는구나~

화기애애

수리 중

우와! 정말
꼼꼼하다!

어! 지난번에 오신 분이
또 오셨으니
더 잘해드려야겠다.
어디, 더
점검할 데는 없나?

그래,
이 부분까지 미리
봐드리는 게
좋겠어.

♪♪

조이 기

휠 알라인먼트를 교정하면
고객님이 더 안전 운행할 수 있을
거야.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타이어 점검은 기본이지!
더 확실하게 하자고!

타
타

수리 끝

고객님~ 수리 다 끝났어요.
이 부분까지 더 봐드렸으니
다음에 불편하시면
또 방문해주세요!

단골손님이
만족스러워하시네?
보기 좋아요!

따보

역시 맨날
여기만 오는 보람이
있다니깐!

수리가 끝났으니
기다리고 있을 고객을 위해
서둘러 타이어를 싣고
나가야지!

다녀올게~!

자~
올라갑니다.
잘 받으세요~

서울 택시 회사의 절반 이상과 타이어 공급 거래를
한다는 해광기업 산하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에는
하루에도 여러 대의 택시가 방문한다. 손님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달려야 하는 택시의 특성을 잘 알기에
더욱더 온 힘을 쏟아 안전 점검에 신경 쓴다는
김포공항점 직원들. 덕분에 장시간의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택시 기사님들도 이곳에 오면 언제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
해광기업과 타이어테크 김포공항점이 손을 잡고 모든
고객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그들의
섬세한 손길은 계속된다.⑩

그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곳, 마운드

그 대가는 인내와 끈기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바로 마운드다. 그 위에 서는 것은 오직 투수 한 사람.
그라운드 위 가장 높은 곳에 서기까지 투수는 무한한
'인내'와 '끈기'로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만 한다.

의학계에서는 투수들의 근육을 보고 “시간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10세 전후에 야구에 입문해 수만 개의 공을
던지는데, 그 노력이 쌓여 탄탄한 근육이 만들어진다.
프로야구를 취재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2007년,
그해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 SK 와이번스의 김광현
투수와 마주친 적이 있다. 당시 스무 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던 김광현의 사복 입은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는데 유난히 각진 어깨에 깜짝 놀랐다. 프로 1년
차 선수들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보통 몸이 가냘프게 마련이다. 그 역시 상당히 마른
편이었지만 어깨만은 '상남자'였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견딘 훈련이 준 선물이었고, 그는 그 어깨로 상대
선수들과 싸워온 것이다.

오랫동안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마운드에
오른 투수들. 거기서 끝이 아니다. 투수들에게는 경기
중에도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된다. '릴리스 포인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최근 많은 감독과 투수

코치들이 투수들에게 “최대한 공을 앞으로 끌고 나와
던지라”고 말한다. 정확하게 힘을 실어 던지려면
마지막 공을 놓는 지점, 즉 릴리스 포인트가 최대한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에 몸 전체의
힘을 실어 던져야 직구 기준 150km 안팎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 속도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에 공을 넣을 수 있어야 타자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공을
놓지 않아야 한다.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참은 뒤
공을 놓아야 그 확률이 높아진다. 한 개를 던지든,
백 개를 던지든 말이다.

직장인들이 “간, 쓸개 다 빼놓고 산다”는 말을 자주
한다. 투수에게도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순간은
찾아온다. 승부욕을 참아내는 것도 그중 하나다.
야구는 상·하위 타선 사이에 언제든지 홈런을 칠 수
있는 중심 타선이 있다. 주자가 출루한 경우, 특히
이번 타자와 어떻게 결판을 내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실점할 수 있는 '2·3루에 주자가 출루한 경우'가 흔히
얘기하는 위기 상황이다. 중심 타선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나 승부를 걸고
싶은 순간이어도 참아내야 하는 경우가 온다. 주자가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다는 압박감이 투수의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득점을 허용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 것이다.

마운드 밖의 투수들은 또 어떨까. 개인적으로
선발투수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못하는
불펜 투수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 불펜 투수들은
선발진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불펜에서 몸을 푼다.
이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상대의 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하기에 보통 2명의 투수가
나온다. 이 둘 중 한 명이 먼저 마운드에 오르면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오를까? 그것도 아니다.
야구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타석의 타자가 누구인지,
출루한 주자가 누구인지, 또는 몇 명인지 등 여러

**투수는 인내와의 싸움을 하는
고독한 보직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경우의 수에 따라 선수 활용이 좌지우지된다. 불펜
투수가 몸을 풀었지만 마운드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세 번 네 번 몸을 풀고도 결국 그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몸풀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결과를 내기 위해서다. 어떤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르더라도 투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만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전날 몸을 자주 풀어서 오늘 경기에서
좋은 공을 던지지 못했다? 프로의 세계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투수에게 가장 큰 인내심이 요구되는 때는 언제일까?
앞에서 여러 사례를 소개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 패배한 뒤다. 메이저리그에서 2년째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는 류현진 선수도 지난해 일곱
번의 패배를 기록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사는
운동선수들, 매번 이기기만 할 수는 없는데 경기
때마다 매서운 평가에 직면한다. 어쩌면 아주 잠깐의
판단 착오로 던진 '실투' 하나가 오늘 승부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오늘 패배의 책임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 투수는 “동점 상황에서 홈런을 맞고 졌는데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다. 인터넷 댓글을 볼 수 없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보지도 못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 내 실수로 졌다고 다음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가 있을까? 선발투수는 5일 후,
불펜 투수는 바로 내일이라도 마운드에 올라야 한다.
전날 홈런을 맞은 패전투수가 다음 날 마운드에 다시
섰을 때 기분을 상상할 수 있을까? 1만 명의 관중이
재판관처럼 그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기분을
말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투수가 감수해야만 하는
숙명이다. 다시 선 이 순간,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지,
압박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투수로
무너질지는 인내로 버티고 선 바로 오늘 결정되는
일이다.
그라운드 위 가장 높은 곳에서 힘차게 공을 뿌리는
투수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가 감내한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올봄에는 우리의 인내도 원하는 결과로 이어져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내와 끈기의 달인들

“인내와 뽕잎은 비단옷이 된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비단처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자크 루소도 말하지 않았던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인내와 끈기를 원동력 삼아 놀라운 결과물을 창출해낸 사람들을 소개한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드라마 <미생>을 기억하는가. 매일 아침 빨간 토끼 눈으로 출근하는 ‘월급쟁이’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마음을 울렸다. 그런 <미생>의 인물들 중에서 유독 측은하게 느껴지던 이가 있다. 늘 축 처진 어깨와 자신감 없는 눈빛으로 삶의 애환을 표현한 ‘박 대리’다. 박 대리를 연기한 배우 최귀화는 20년 차 무명 배우다. 드라마 <제중원>을 비롯해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해무>, <마담 뽕덕> 등 꽤 유명한 영화에 출연했으나

단역으로 스쳐간 그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그래서 최귀화는 ‘언제나 IMF’라고 표현할 만큼 혹독한 무명 시절을 거쳤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품과 작품 사이엔 무대에 조명을 다는 일부터 전단 붙이기, 휴대폰 케이스 만들기, 명함이나 달력의 오더를 따내는 일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난해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를 찍고 나서는 지하철역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고 연기 연습에 매진한다. 배역의 경중과 상관없이 연기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란 미생의 대사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는 그는 오늘도 즐겁게 버틴다.



최귀화



김연아

인내와 끈기의 피겨 여왕

대한민국 국민 중 ‘피겨 여왕 김연아’를 모르는 이가 있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Queen 연아’라 불린 그녀는 피겨 선수로서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 이미 은퇴를 했음에도 김연아가 우리에게 ‘최고’로 기억되는 건, 그녀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세계를 감동시킨 선수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김연아는 점프에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반복하는 끈기를 가졌다. 현역 시절 ‘점프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수천 번이 넘게 아이스링크에 엉덩방아를 찢어야 했다.

사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도 올림픽이란 큰 무대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연아는 그 모든 부담과 압박감을 이겨내고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모두 ‘무결점’ 연기를 선보여 국민에게 뿌듯한 기쁨을 안겼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끈기 있게 노력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실제로 지난해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쇼트 프로그램 연기를 마친 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몸을 풀 때부터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내 “지난 몇 년간 매일 빼놓지 않고 쇼트 프로그램을 연기했다.

연습할 때 잘했는데 실전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면서 임했다”며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김연아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다. 여자 싱글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그랜드슬램(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금메달 석권)을 달성하고, 올포디움(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권 입상)이란 전무한 기록을 남긴 김연아.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으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펼친 그녀는 진정한 ‘인내와 끈기의 여왕’이다.



에드워드 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종

지난 2009년,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버즈 알 아랍 수석총괄주방장(Hotel Head Chef)의 자리를 박차고 한국으로 돌아온 셰프가 있다. 바로 세계 정상급 셰프, 에드워드 권이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두바이까지 진출한, 특별한 경력을 가진 셰프다. 한국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더욱 큰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새벽마다 학원에 가서 하루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출근했다.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의 리츠칼튼 호텔에 새 동지를 틈 그는

자신의 힘으로 먹고살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을 했다. '내가 가진 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는 끈기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꼬박 2년간 전쟁을 치르듯 일하며 실력을 쌓은 것이다. 그런 그의 모습에 당시 호텔 총주방장은 "너 같은 독종은 처음 본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죽자 살자 끈기 있게 일한 노력은 고스란히 실력이 됐고, 그는 중국 텐진 쉐라톤 그랜드 호텔 총주방장과 두바이 페어몬트 호텔 수석총괄주방장을 거쳐 마침내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텔에 입성했다. 그렇게 독종 셰프, 에드워드 권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파벨 네드베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끈질긴 사나이

"나는 집에서 60마일이나 떨어진 축구 학교에 다녔다.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했고 두 다리 중 어느 한 다리가 우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처음으로 희열을 느꼈다. 스파르타 프라하 소속 시절 경기가 끝난 뒤 바로 훈련장에 가서 훈련했고, 쓰러져도 다시 필드의 잔디를 잡고 일어섰다. 나의 일과는 훈련장의 조명이 꺼질 때 끝났다." 이는 축구팬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파벨 네드베드의 명언이다. 그는 '체코의 심장'이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로 불리는 체코 최고의 미드필더였다. 파벨 네드베드는 1991년 두클라

김창호



성공은 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내와 끈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다.

프라하에서 데뷔한 이래 체코 리그 최고의 팀인 스파르타 프라하와 이탈리아 라치오, 유벤투스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선수 시절 그는 "인플레이 상황에서 걷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심판보다도 카메라에 더 많이 비친다"는 말을 들을 만큼 성실하면서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다. 더욱이 파벨 네드베드는 유럽에서 보기 드문 '양발잡이' 미드필더로서도 명성을 떨쳤다. 끈질긴 연습의 결과로 그는 어느 위치에서든 강력한 슈트를 날릴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2009년 은퇴해 그라운드를 떠났지만 여전히 축구팬들은 그를 성실하고 끈질긴 스포츠맨으로 기억하고 있다.

해발 0m부터 8,848m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김창호는 전 세계 오지를 탐방하며 인간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산악인이다.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파키스탄과 네팔의 무수한 산을 올랐다. 지난 2012년에는 네팔의 가장 높은 미등정봉인 '힘중'을 세계 최초로 등반해 클라이밍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황금피켈상 아시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등반 자체가 무수한 인내와 끈기를 요하는 일이지만, 그의 등반은 조금 더 특별한 인내를 요한다. 지난 2013년 5월 20일 김창호는 에베레스트(8,848m)를 등정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히말라야 14좌(히말라야 산맥의 8,000m 이상 14개 고봉)를

무산소로 오르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더욱이 그가 이끄는 원정대는 해발고도 0m의 해안에서부터 8,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까지 화석연료를 일절 쓰지 않고 카약 · 자전거 · 도보 · 트레킹으로 이동했다. 대부분의 원정대가 해발 2,840m에 위치한 네팔 루크라까지 항공기로 이동한 뒤 등반을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고자 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길, 김창호는 뚝뚝뚝 두 발로 걷고, 카약과 자전거를 타며 에베레스트의 모든 순간을 만끽했다고 말한다. 그것이 산악인 김창호, 그가 에베레스트를 만나는 방법이었다. ²⁰

도보 여행가 황안나 내 여행의 팔 할은 끈기다

황안나는 올해 일흔여섯,
할머니 도보 여행가다.
배낭을 메고 우리나라 국토 종단부터
해안 일주, 산티아고와 아이슬란드,
동티베트, 시칠리아 등 50개국의
길을 걸어서 여행했다. 호기심으로
한 걸음, 끈기로 한 걸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그녀는
“내 여행의 팔 할은 끈기”라 말한다.

재밋게, 맛있게, 행복하게

“그 나이에 미쳤냐?” 황안나 할머니가 800km 국토 종단을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65세’란 그녀의 나이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2년 후 다시 혼자서 4,200km 우리나라 해안 일주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때마다 황안나 할머니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 호기롭게 되물었다.

“다들 나를 걱정해서, 혹여 몸이라도 상할까 염려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미친 짓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내가 1997년, 신여덟에 교직을 그만뒀는데 그때 ‘도보 여행가가 되겠다, 책도 써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그저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즐겁게 걷다 보니 책도 쓰게 됐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었네요.”

이야기 끝에 황안나 할머니는 “멋지게 살 자신은 없지만 언제나 재밋게, 맛있게,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며 미소 지었다. 재밋게, 맛있게, 행복하게! 이 세 마디는 황안나 할머니가 구절양장(九折羊腸) 인생길을 걷는 내내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결혼해서 문간방에 세 들어 살 때였어요. 부뚜막에 사과 껍질 하나 놓고 그 안에 딱 스텐 공기 네 개, 수저 네 벌만 놓고 살았어요. 그런 중에도 냉방이다시피 한 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스텐 공기데다 커피를 타 마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네요. 귀통이가 깨진 라디오를 들으며 ‘아, 참 좋다!’ 했지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네 식구 건강하고 내게 직장이 있으니 다행이라 여기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신히 길모퉁이를 돌았다고 생각했을 때, 절벽을 만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혹자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까, 나사가 좀 빠진 거 아니냐” 라고도 했단다. 그럼에도 황안나 할머니는 퇴근길, 시들시들한 딸이 장미를 사다가 소주병에 꽂아놓고 웃었다. 그저 재밋게, 맛있게, 행복하게. 그녀의 이정표가 가리키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걸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만큼만

황안나 할머니는 정년을 7년 앞둔, 58세가 되던 해 학교를 그만뒀다. 처음 3년간은 동네 산을 타다가 60세에 산악회에 입회했다. 전국의 산을 두루 다니다 보니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새벽마다 헬스를 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한 것이 벌써 15년째다. 그렇게 체력을 쌓은 후 65세에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800km 국토 종단에 도전했다. 67세엔 4,200km 우리나라 해안 일주도 했다. 그 후엔 국내의 이름난 길은 물론이요, 산티아고와 네팔, 홍콩, 몽골, 부탄, 동티베트, 베트남, 발트3국, 아이슬란드, 시칠리아 등 50개국의 길을 밟았다. 73세가 되던 해엔 ‘지금도 할 수 있을까?’란 호기심으로 4,400km 해안 일주에 다시 도전해 완주했다. 지난해엔 75세의 나이로 지리산 화대종주에 성공하기도 했다. 머리에 새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할머니의 이 놀라운 행보에 수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방송 출연과 강연 요청이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66세에 출간한 국토 종단기 <내 나이가 어때서?>를 시작으로, 72세에 <엄마, 나 또 올게>를, 작년엔 <일단 즐기고 보련다>라는 에세이집도 펴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거 같아요. 특히 나는 남들이 늦었다 하는 나이에 배우기 시작한 게 참 많거든요. 운전면허증도 50세에 땀으니까요. 일흔에 DSLR 카메라 사용법을 익혔어요. 책을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단은 못했지만 66세에 책을 출간하며 어릴 적부터 꿈꿔온 작가가 되었어요. 71세 땀 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써보고 싶어서 ‘여행 작가 글쓰기 강좌’도 들었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필기를 했고, 숙제도 열심히 하겠지요. 그 자체가 나에게 활기를 주더라고요. 오늘도 인터뷰하러 오기 전에 <경향신문>을 읽었는데 3월부터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더라고요. 보자마자 ‘신청해야겠다!’ 싶었어요.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하다 모르는 게 나오면 물어보면 되니까요.” 흔히 ‘에너지’는 젊은이들만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든이 넘어서도 글을 썼던 괴테와 붓을 놓지 않았던 미켈란젤로처럼, 황안나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호기심으로 한 걸음, 끈기로 한 걸음

“우리나라 해안 일주를 할 때였어요. 장흥 일대를 걷다가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의 집필실인 ‘해산토굴’에 들렀습니다. 한승원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신 첫 말씀이 ‘미련하고 무모하고 무식하다’였어요. 그러시더니 ‘그런데 요즘은 미련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다. 미련한 사람이 소중한 시대다’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여행을 못했을 겁니다.” 도보 여행가로 유명해지면서 황안나 할머니는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걷는 일이 많아졌다. 그때마다 그녀가 사람들을 격려하는 구호가 있다. 바로 ‘아픈 몸이 나을 때까지! 젖은 옷이 마를 때까지!’다. “돌아보면, 내 여행의 팔 할은 끈기였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어떤 마을이 있을까, 누가 살고 있을까?’란 호기심으로 길을 나서면 그다음부터는 끈기입니다. 다들 내가 무슨 철인인 줄 아는데 일흔여섯에 안 아프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집에 있어도 아프고, 나가도 아플 바엔 나가는 게 나아요. 정말 신기한 게 나가서 꾸준히 걸으면 통증을 좀 잊게 돼요. 아픈 몸이 낫고, 비에 젖은 옷이 마르고, 힘들고 서럽던 마음이 평온해지죠.” 호기심으로 한 걸음, 끈기로 한 걸음 걷다 보니 도보 여행가가 되었고, 강연가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다. 그렇게 전 세계의 길을 따라 걷던 황안나 할머니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길’이 된 게 아닐까. 인터뷰 사진을 찍기 위해 카페에서 나와 길 위에 섰다. 꽤 굵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노라니 비구를 가득한 하늘에도 한 줄기 햇살이 비치는 듯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도 <레 미제라블>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꽃피는 노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여명의 빛이 있다”고¹⁰⁾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하다 모르는 게 나오면 물어보면 되지요.



컴파운드개발팀 박석진 기장

여기 이 사람, 뱃속까지 넥센인이다!

10년에 한 번 변한다는 강산이 네번째 모습을 달리할 38년. 그 시간을 오직 넥센타이어와 함께 걸어온 사람이 있다. 바로 넥센타이어 최장기 근무자, 컴파운드개발팀의 박석진 기장이다.

고성 청년, 타이어 회사에 발을 딛다

명절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시 사람들의 하얀 얼굴과 깔끔한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던 스무 살 청년 박석진. 경남 고성 작은 마을에서 어른들의 탈곡을 돕던 그는 1977년 10월, 청운의 꿈을 안고 부산으로 향했다.

“처음엔 시골서 도시로 간다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튜브 만드는 공장에서 3교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공도 차고 산에도 많이 다녀서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도 버겁더라니까요.” 힘들면 쉬어가며 하던 농사일과는 달리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 생산 현장 일을 하려니 시골이 낯다는 생각이 들기도 여러 번이었다. 온종일 먼지를 뒤집어쓰고, 퇴근 후엔 지쳐 잠들기 일쑤였던 그때를 떠올리면 어떻게 일했나 싶을 정도라고, 그래도 동료들과 술 한잔씩 기울이다 보니 그것도 적응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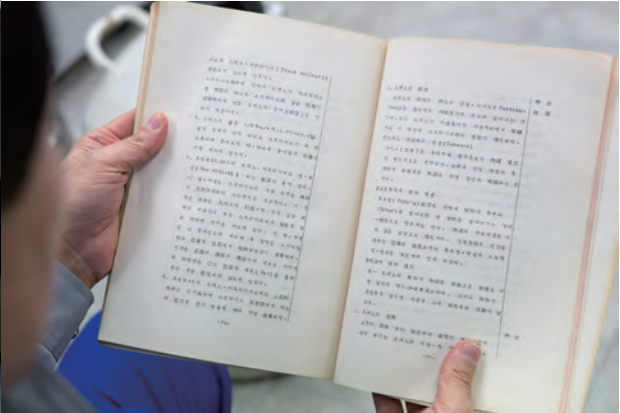
“옛날에 회장님이 한번 내려오시면 밀가루 21kg짜리를 한 포대씩 줬어요. 각자 집에 보내기도 했지만 총각들은 대폿집에 가서 술이랑 바퀴 먹었지요. 힘들긴 했어도 낭만이 있었어요.”

튜브 제조 공장이었던 가루에서 생산팀 행정으로, 정련, 개량, 연구소 시험실을 거쳐 현 물리실에 이르기까지 박 기장이 근무했던 부서의 이력도 오랜 시간만큼이나 화려하다. 설비가 지금처럼 좋지 않던 그 시절엔 거의 모든 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했으며 두 손을 들어 그가 옮겼던 나사의 크기를 보여준다.

“자금은 몰드 하나도 자동으로 덮이지만 그때는 ‘이따만한 나사’로 다 참가야 했어요. 이 나사를 고리와 쇠 봉으로 끼워서 지렛대 원리로 잠그느라 한 몰드에 사수, 조수 두 명이 필요했지요. 요즘은 디지털로 계량하는 것도 옛날엔 일일이 추 없어서 무게 맞추고, 포대 개다가 폭~ 나오는 까만 가루를 흘랑 뒤집어쓰기도 하고요.”

옛 동료들과 복작복작 작업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특히 서너 명이 종일 걸려야 겨우 하나 만드는 볼도저 타이어를 조립하는 게 가장 재미있었다며 함께했던 동료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박 기장. 지금도 종종 만나면 옛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끈끈한 친구로 남아 있단다.

1982년에 선배로부터 받은 타이어 제조 관련 교본





청춘을 다 바친 넥센타이어, 내 마음의 고향

박석진 기장은 원풍타이어이던 시절부터 국제그룹, 우성타이어를 지나 세계 타이어 업계가 주목하는 지금의 넥센타이어까지 모두 겪고 있는 넥센타이어 역사의 산증인이다. “끈기 있게 회사 다닌 덕분에 내 평생에 인터뷰를 다 해본다”던 그에게도 어려움의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다.

“40년 동안 이 회사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겪었죠. 다른 회사로 인수도 됐고, IMF의 어려움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묵묵히 버틴 덕분에 아이들 학교 졸업시키고 시집도 보내고, 큰 풍파 없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참 고맙고 기쁜 일이지요.”

내내 무심한 듯 이야기를 나누던 박 기장의 입가에 미소가 맴돈다. 인터뷰 며칠 후면 태어날 손주 생각 때문이다. 가끔 ‘넥센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싶다며 청춘을 다 바친 이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넥센타이어를 빼고는 자신의 인생을 논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38년 전, 일당이 1,200원으로 올라 신 나서 동료들에게 술도 사고 명태도 한 상자씩 돌리던 천방지축 청년이 지금은 팀 내 최고참으로서 직원들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그 역할에 어깨가 무거워 ‘내 위로 두 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곤 하지만, 업무에 열중한 직원들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이 사뭇 따스하다. 한 직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라. 변함없이 출퇴근하며 쌓인 박석진 기장과 넥센타이어의 세월의 더께가 자못 두터우리라. 오랜 ‘넥센인’ 박 기장의 내일도 넥센타이어와 함께 행복하길, 그가 넥센타이어를 떠나게 될 때엔 아쉬움은 약간, 벅찬 기쁨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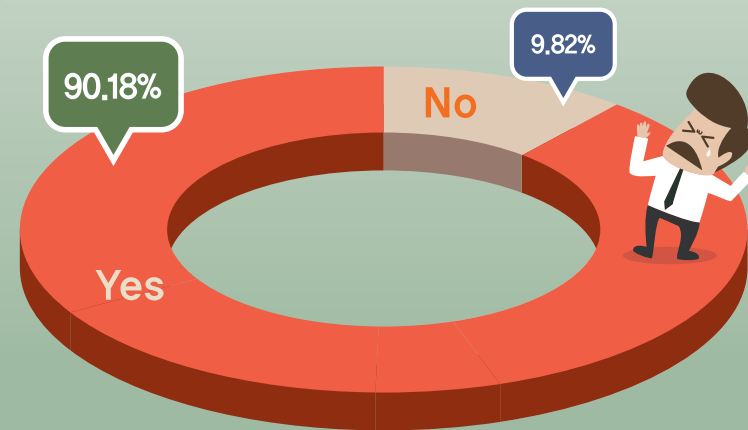
넥센인 분노 리포트

나 이럴 때
화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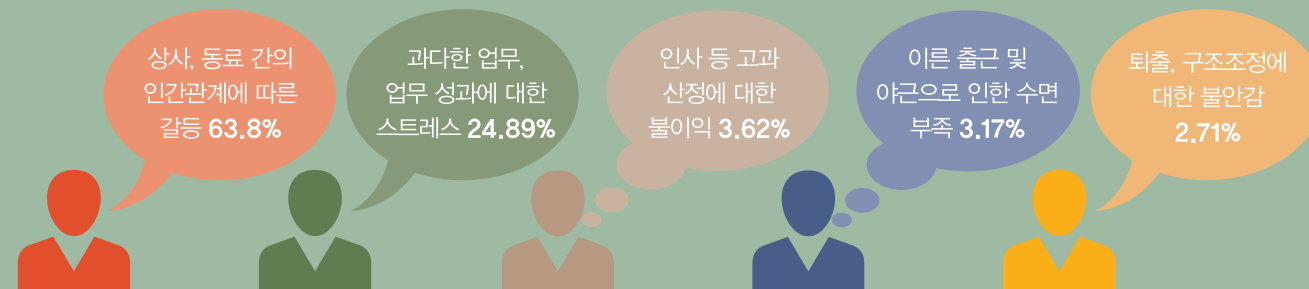
딱 막힌 상사, 여우 같은 동료,
답답한 후배 때문에 울컥울컥 화가
치밀지는 않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화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상 설문 조사
출처: 취업포털 커리어

Q.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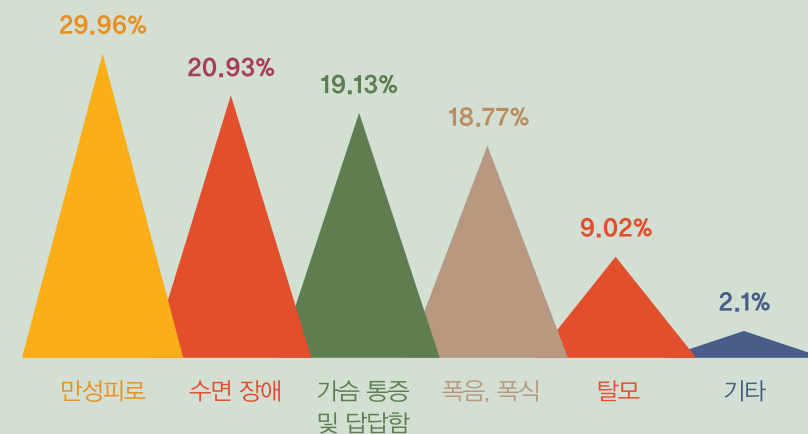
Q. 화병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Q. 넥센인 여러분은 어떤 동료를 볼 때 가장 화가 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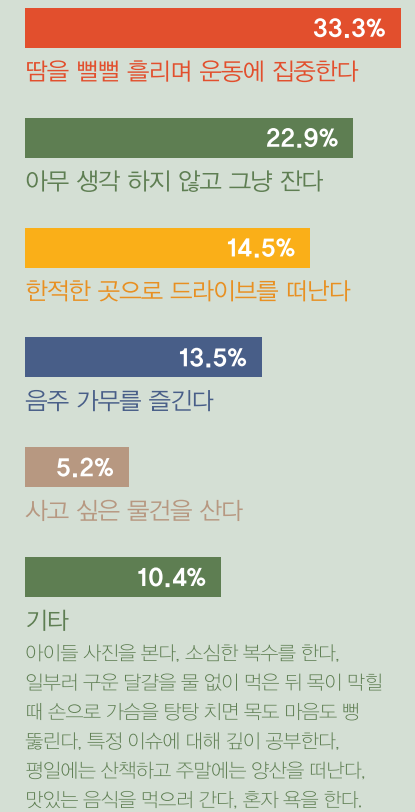


Q. 넥센인 여러분은 화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어지럽고 멘탈이 붕괴된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덜미가 뻐뻐해진다. 심장이 울렁거리고 말을
더듬는다.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화가 나 있는 1분마다 60초 동안의 행복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자신의 몫이겠지요. 무턱대고 ‘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무작정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은 억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올바른 정신 건강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현명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터득해야겠습니다.㉞

Q. 화를 이겨내는
넥센인만의 방법!

인내심이 필요 없는 흥미진진한 책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어

〈미생〉

윤태호 | 위즈덤하우스,
1만 1천 원(세트 9만 9천 원)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를 보며 ‘지금 내가 처렇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며 깊이 공감하지 않을 직장인이 어디 있으랴. 고졸 출신의 장그래가 낙하산으로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펼쳐지는 스토리는 여느 SF 영화보다 흥미진진하다. 여기에 울골은 리더인 오 과장, 명문대 출신의 동기인 장백기 등 리얼한 캐릭터들이 매력을 더한다. 드라마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세세한 내용이 책에 나오니 감동은 배가 된다.

사우평 하루 만에 전권을 다 읽을 정도로 몰입력 최고, 직장인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았다.



잠깐 보아도
덕분에 웃게 돼

〈서울 시〉

하상욱 | 중앙북스, 9천 8백 원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_‘지옥철’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다짐해도_‘야식집’
두 줄의 짧은 글과 간단한 제목으로 시를 써서 큰 화제를 몰고 온 詩팔이 하상욱. 그의 시는 찰나를 관통하는 공감과 피식 웃게 하는 작은 재미를 준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활자로 느끼고 싶다면 〈서울 시〉를 펼쳐 보자.

사우평 쉽고 재미있어 시는 난해할 것이란 편견을 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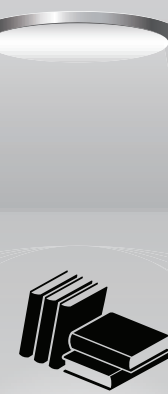
진짜 인생은
시궁창 바닥에 있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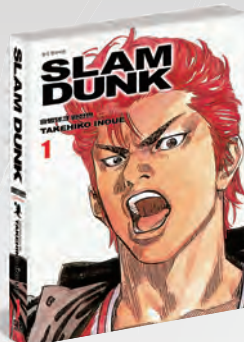
박민규 | 한겨레출판, 1만 1천 원

이 소설은 패배로 점철된 야구 팀을 다룬다. “우리의 소원은 1등도 아니고 단 한 번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울부짖는 주인공의 외침에도 삼미 슈퍼스타즈 팀은 만년 꼴찌를 끝으로 매각된다. 열렬한 팬이었지만 자신만큼은 꼴찌가 되고 싶지 않았던 주인공은 일류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다. 하지만 일과 가정이 몰락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는다.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그에게도 승리의 날이 올까?

사우평 오욕칠정이 다 담긴 인간의 삶을 야구로 표현. 워트 넘치는 문장도 술술 읽힌다.



올해는 기필코 독서왕이 되리라 결심한 당신! 하지만 한 줄만 읽어도 눈이 감기고 온몸이 근질거린다면 지금 읽는 책은 잠시 덮어두자. 시간과 시선을 단숨에 빼앗아버리는 책들을 모아보았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험 종료다 〈슬램덩크〉

이노우에 다케히코 | 대원씨아이,
9천 5백 원(세트 22만 8천 원)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슬램덩크〉 주제가만 나와도 가슴 설레는 남자 사우들 많을 것이다. 〈슬램덩크〉는 90년대 농구 붐을 일으킨 주역이다. 서태웅의 드리블과 정대만의 3점 슛을 따라 하던 그 시절. 강백호와 서태웅의 마지막 하이파이브에 몰래 눈물짓던 남학생은 이제 넥타이를 맨 회사원이 됐다. 스마트폰의 웹툰도 재미있지만 학창 시절 향수가 물씬 느껴지는 〈슬램덩크〉를 다시 펼쳐 보자. 어느새 마지막 경기를 보고 있을 것이다.

사우평 강백호가 될 순 없었지만 슬램덩크를 하려 아등바등했던 명작.



마음을 닦아주는 한 편의 시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 오래된미래, 9천 5백 원

한 손으로 잡기도 힘든 두께와 짙찬 활자가 버겁다면 시를 읽는 건 어떨까?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은 따뜻한 커피 한잔처럼 위로를 주는 시집이다. 고대 이집트 서기관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시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분량도 부담 없어 독서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다. 맘에 드는 구절은 엽서에 정성껏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센스도 발휘해보자.

사우평 인위적인 감동보다는 잔잔한 깨달음이 있어 지친 마음을 달래기에 딱이다.



일이 힘든가? 사람이 힘들지! 〈사무실의 멍청이들〉

켄 로이드 | 길벗, 1만 2천 8백 원

압축기처럼 나를 짹짹 누르는 상사. 신이 내린 아첨꾼인 동료.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하 직원 때문에 지친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주가만큼 다이내믹한 회사 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팁이 가득하다. 더불어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도 할 수 있다. 주말에 잠을 내어 한 권을 휘리릭 읽고 나면 월요일 출근길이 조금은 상쾌해지지 않을까 싶다.④

사우평 직장 생활이 서툰 사회 초년생에게 권한 다. 해답까지 명쾌해 속 시원한 책!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넥센인을 소개합니다!



매일같이 함께 일하고 밥 먹으며 어느새 돈독한 사이가 되어버린 우리. 업무에 힘들고 지칠 때 부담 없이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동기들, 더 큰 넥센인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는 선배,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후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넥센인을 소개합니다.



(창)금형파트 최지웅

작년에 거제 해상 펜션에서 동료, 파트장님, 기장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류파트 김상섭 조장

밤샘 작업 후 직원들과 가지산에 올랐습니다. 상쾌해보이죠?



박성근 파트장님이 저희를 위해 장어를 굽고 계시네요.



(창)인사총무팀 오동진

많은 선후배 동료 중에서도 역시 가장 끈끈한 건 동기 겠죠! 공채 23기(창녕공장 공채 17기) OJT 성과발표회 때 LGV조(오동진, 김영민, 이상민, 지시언, 김형근)와 이가용입니다~



생산관리파트 김인식 기장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격에 반해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된 정련파트 유석만 기장님입니다. 작년 기장 워크숍 때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상파울루지점 정우석

해외영업 미주팀원으로 입사한 2011년 첫 회식 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들과 함께한 순간입니다. 5년 차에 접어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품디자인팀 김명권

입사 초기 모르는 것도 많고 타지에 적응하느라 바빴던 제게 많은 도움을 준 선배, 김효중 주임 연구원, 정재운 연구원입니다. 이 선배들 덕분에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영업관리팀 한창운 과장

2012년 당시 영업관리팀끼리 욱지도로 단합회를 떠났습니다. 그날 서울에 쏟아진 폭우 때문에 망연자실했는데 욱지도에 입도하자마자 하늘이 어찌나 파랗던지, 용왕님이 도우신 것 같았어요.



설비보전파트 양영규 기장

영하의 날씨에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곳, 정련 옥상에서 작업 전 테스트를 하시는 손일은 조장님입니다.



설비보전파트 정재욱

창녕의 조정일 기장님과 양산의 안기봉 조장님입니다. 다정하게 귀지 파주는 모습을 몰래 찍었어요. 귀지까지 파주다니, 애정이 보통 넘치는 게 아니죠?



재료연구팀 박다민

2014 신입사원 입문교육 UCC 1조입니다. 뭐든 1등을 휩쓸 정도로 최강의 호흡을 자랑했죠. 지금은 서울, 양산, 창녕, 대구에 흩어져 있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의지하는 넥센인들이에요.



서부산지점 배진화

작년 10월, 남부지사 여직원끼리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단합회를 다녀왔어요. 역시 돈독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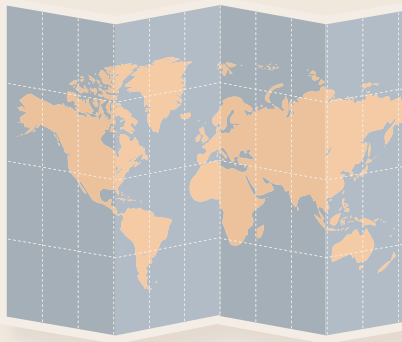
전기파트 박재수

밸런타인 초콜릿 하나로 행복해진 김성훈, 이정훈, 박대현, 이진상입니다.



유럽TC 양희준 주임연구원

최전방 전쟁터(Car Maker)에서 타이어 성능 승인을 위해 한창 고생 중인 후배 김종환 주임연구원입니다. 진지해 보이지만 다시 보니 웃기네요. 하하!



유럽팀 서은경

지난 9개월 동안 저와 런던을 담당하시던 함우성 과장님이 미주 법인 주재원으로 가셨어요. 겉으로는 툴툴대셔도 언제나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셨던 함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빌어요! (성민 씨는 찬조 출연이네요.)





(창)재료파트 정대호 조장 가족의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나들이 아빠와 함께 행복한 하루

높고 맑은 하늘이 유독 파랗던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앞. 저 멀리서 들려오는 까르르 소리가 정겨워 고개를 들어보니 정대호 조장의 단란한 네 식구가 다가온다. 한껏 따뜻해진 봄날에 사랑 에너지를 마구마구 발산하는 가족과 함께, 오늘의 나들이 출발~

다정다감 아빠, 사랑 가득 엄마

엄마, 아빠와의 외출에 신이 나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여섯 살 윤서와 언니 따라 아장아장 걷는 14개월 소윤이. 그런 두 딸을 바라보는 부부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여느 부모보다 더 다정한 듯 보인다.

“올해는 남편 쉬는 날마다 공원이며, 키즈 카페로 자주 다녔어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들 텐데도 우리를 위해 노력해주니 정말 고맙죠.”

윤서 손에 이끌려 과학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정대호 조장을 보며 아내 김경미 씨가 흐뭇함을 감추지 못한다. 아이들이 한창 예쁜 이 순간을 아빠의 눈에도 가득 담길 바라는 마음에 일이 많은 걸 알면서도 바가지(?)를 굶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대호 조장이 나서서 가족 나들이를 제안한다.

“신혼 초에 무릎을 다쳐 일을 쉰 적이 있어요. 일하는 아내 대신 윤서를 돌봐야 했죠. 거의 돌 때까지 이유식 타주고 목욕시키며 키웠더니 상당히 깊은 애착이 형성되더라고요. 소윤이 때는 일이 바빠 많이 못 봐줘서 아쉬워요. 어릴 때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정 조장이 다시 아이들에게 시간을 쏟고 나서야 안기기 시작했다는 소윤이와 달리 윤서는 과학관을 구경하는 내내 아빠의 손을 놓지 않는다. 바람의 세기를 체험하는 기계 앞에서도 ‘아빠!’, 태풍을 만드는 터치스크린 앞에서도 ‘아빠!’ 하던 윤서. 급기야 과학관을 가로질러 달리며 외친다.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 아빠 회사는 넥센타이어!

윤서의 아빠 사랑은 아빠 회사 사랑으로 이어진다. 넥센타이어 TV 광고를 보면 “우리 아빠 회사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갓 말을 배우던 때도 넥센타이어만큼은 꼭 부러지게 말하더라. 예쁜 딸이 이렇게나 좋아하니 정대호 조장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 더구나 이들 부부 사이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데도 넥센타이어가 한몫 톡톡히 했다면 경미 씨가 말을 잇는다.

“남편이 결혼 후에 입사를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나가 지치지도 않고 공부하는 걸 보면서 뭘 해도 하겠다, 든든한 가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비 온다! 비! 물방울 잡아보자~”

윤서의 외침에 네 가족이 3D 안경을 쓰고 도란도란 소파에 눕는다. 아직 뭐가 뭔지 몰라 어리둥절한 소윤이도 언니 따라 천장에 시선 고정. 눈앞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꽃송이를 잡으려 두 손을 번쩍 든다. 한참을 집중하던 윤서가 다시 아빠 손을 잡고 달려간 곳은 기상 캐스터 스튜디오. 기상예보 카메라 앞에서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한다. 엄마와 함께 프롬프트 원고를 읽는 것으로 귀여운 기상 캐스터 변신 성공!



동갑내기 부부의 행복 만들기

이 부부가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문득 처음 만난 순간이 궁금해 물었더니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며 너스레를 떨던 것도 잠시, 이내 정 조장의 입에서 아내를 소개받은 날과 첫 데이트의 추억까지 술술 나온다.

“2005년 개천절에 처음 만났고, 한글날 다시 만나 청계천에서 독섬까지 걸었어요. 그때 와이프가 10cm 힐을 신고 있었는데...”

높은 구두 때문에 고생한 경미 씨를 위해 정 조장이 걷던 중간중간 멈춰 발을 주물러줬단다. 무려 두 번째 만남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 신랑한테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첫눈에 반하면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전 그걸 경험했니까요!”

투닥거리는 날도 많지만 그 바탕에 깔린 애정이 깊고 단단한 것만은 분명하다.

“제가 경상도 남자라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안 나와서...”

“그런 표현은 애들한테 하면 더 좋죠, 뭐.”

“아이고~ 이래서 룡련하겠네!”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알콩달콩 산다는 동갑내기 정대호 · 김경미 부부. 환갑, 칠순을 맞아도 서로에게 설레는 배우자이자 친구이기를, 천진난만한 두 아이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글
박진호(여행 전문 기자)
사진
박진호, 조남준, 천용호, 최은영
취재 협조
청양군

내딛는 발끝마다
꽃내음 가득하여라
충남 청양

DAY 1

칠갑산 산장로 → 칠갑광장식당 → 청양목재문화체험장

DAY 2

칠갑산 천문대 → 칠갑산 산꽃마을 → 칠갑사 → 참봉민물매운탕 → 모덕사 → 천장호 출렁다리 → 고운식물원



- 1 목공예 체험이 가능한 청양목재문화체험장
- 2 칠갑광장식당의 산채비빔밥
- 3, 4 밤에 더 아름다운 칠갑산 천문대
- 5 벚꽃 흐드러진 장곡사 벚꽃길

첫날은 나무 냄새를 따라가는 여행이다. 칠갑산 정상에 오르는 8개 등산로 중 칠갑광장에서부터 시작하는 3km의 산장로는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철쭉이 산등성이를 곱게 물들어 봄에 오르기 가장 좋다. 초입에 있는 칠갑산 천문대에 들려 천체 관측을 예약하자. 천체 관측은 당일 방문 예약제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산행 뒤엔 산채비빔밥으로 활기를 충전하길. 8가지 산나물과 구수한 청국장을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싱그러운 봄기운이 가득 채워진다. 칠갑산을 내려와 칠갑호로 방향을 잡고 10분 정도 달리면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나온다. 아이와 함께 의자나 작은 수납장 등 목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완성품은 집에 가져가도록 하자. 목공예 체험 후 목재 전시장까지 알차게 둘러봤다면 칠갑산 천문대에 들러 차례. 별을 보는 내내 탄성이 쉴 새 없이 터진다. 가득 채워진 감성을 좀 더 만끽하고 싶다면 잠자리는 산꽃마을에 마련하자.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645번 지방도에 속한 장곡사 벚꽃길 변에 자리한 산꽃마을에서는 훈훈한 시골 인심을 느낄 수 있다.

첫째 날, 나무 냄새 따라 타박타박

09:00 칠갑산 산장로

청양 중심부에 우뚝 서 있는 해발 561m의 칠갑산은 묵신묵신한 흙길이 깔려 있어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걷기에도 무리가 없다. 그중 칠갑광장부터 정상까지 왕복 6km의 산장로는 경사가 완만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오르기에 안성맞춤. 4월 중순에서 5월 초, 칠갑광장에서 자비정으로 향하면 벚꽃이 터널을 이뤄 그늘마저 분홍빛이다. 5월 초부터는 자비정에서 정상까지 철쭉 군락이 여행객의 무릎에 진분홍 꽃물을 들인다.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한티고개길 178-8
문의 041-940-2721

12:00 칠갑광장식당

산행을 마치고 먹는 산채비빔밥은 별미 중의 별미다. 칠갑산에서 뜬 8가지 나물에 덩으로 나오는 청국장찌개와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으면 봄이 한입에 들어온다. 쓱쓱 비빔밥을 구운 김에 싸 달래간장에 찍어 먹으면 싱그러운 봄맛 완성!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한티고개길 178-8
문의 041-942-1818 **가격** 산채비빔밥 7천 원

13:00 청양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체험과 함께 목재 전시품과 목공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간단한 의자나 수납장을 만드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 만점. 내 손으로 완성한 공예품을 집으로 가져갈 때의 뿌듯함은 경험자만이 느낄 수 있다. 월요일 휴관.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1
문의 041-940-2841~2
이용 요금 목공예 체험 3천 원~3만 원(예약 필수)

18:00 칠갑산 천문대

야간 천체 관측은 19:30분부터 20: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3차례 진행된다. 누워서 보는 5D 천체 시뮬레이션 영상과 3D 안경을 쓰고 보는 3D 입체영화를 관람하면서 곧 다가올 천체 관측을 기다려보자. 천체 관측은 당일 방문 예약만 가능하다. 월요일 휴관.

주소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178-46
문의 041-940-2790 **이용 요금** 어른 3천 원, 학생 2천 원

21:00 칠갑산 산꽃마을

4월 중순부터 많은 상춘객들이 찾아 북적이는 장곡사 벚꽃길 변에 산꽃마을이 있다. 꽃사당·향초·야생화 화분·화전 만들기과 꽃 염색, 소달구지 타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훈훈한 시골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사전에 예약하면 농가에서 직접 기른 닭과 염소를 주재료로 한 저녁을 맛볼 수 있다.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가치내로 1063-1
문의 041-944-2007 **숙박료** 4인 가족 기준 6만 원

둘째 날 여정은 꽃향기를 따라간다. 벚꽃 내음 가득한 장곡사 벚꽃길을 따라 부여 방향으로 5분 남짓 차를 달리면 높이 솟은 장승과 솟대를 지나 칠갑산 장곡사에 닿는다. 점심은 지천구곡에서 잡은 신선한 민물고기의 아들아들한 속살이 일품인 참봉민물매운탕에서 맛보시길. 민물고기에 향긋한 채소를 넣어 끓인 이 집 민물매운탕은 원기 회복에 그만이다. 배를 채운 뒤에는 645번 지방도를 따라 최익현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모덕사에 가보자. 모덕사에 들러 최익현 선생 생가를 둘러보고 우목저수지에서 봄날의 여유를 만끽해도 좋다. 마치고개를 넘으면 보이는 천장호 출렁다리는 걸음마다 울렁거리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마지막 코스로 고운식물원에 들르면 청양의 봄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다. 골짜기를 한 꺼풀씩 벗길 때마다 부끄럽게 불을 뿜히는 청양 여행은 발길 닿는 곳마다 설렘이 가득하다.

둘째 날, 꽃향기 가득한 물 따라 출렁출렁

09:00 장곡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축 형태와 축조 시대가 다른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2개의 대웅전을 보유한 장곡사는 850년 신라 문성왕 때 지은 천년 고찰이다. 국보 2점과 보물 4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사찰로, 깊은 칠갑산 골짜기에 포옥 파묻힌 덕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는 동안에도 훼손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241 문의 041-942-6769

12:00 참봉민물매운탕

장곡사 벚꽃길과 지천구곡이 만나는 삼거리에 계곡을 끼고 들어서 있는 참봉민물매운탕은 26년 전통의 매운탕집이다. 지천구곡에서 그물로 잡아 올린 메기, 쏘가리, 빠가사리와 칠갑산에서 채취하고 기른 농작물을 넣어 끓인 민물매운탕은 봄 입맛을 돌게 하는 데 그만이다.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904-14

문의 041-942-6643, 2471

13:00 모덕사

일제강점기 일본군과 싸우던 중 체포되어 단식하다 끝내 순국한 면암 최익현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 고종황제가 내린 밀지 가운데 “면암의 덕을 흠모한다”라는 문구 중 모(慕) 자, 덕(德) 자를 취하여 현액하였다. 모덕사로 향하는 길에는 자동차의 창문은 열고 달리자. 장곡사 벚꽃길을 지나 모덕사로 향하는 골짜기마다 알뜰하게 일군 밭의 온갖 작물이 푸릇푸릇한 싹을 한껏 드러내 봄 인사를 건넨다.

주소 충남 청양군 목면 나분동길 12 문의 041-940-2481

15:00 천장호 출렁다리

천장호 출렁다리는 동양에서 2번째로 긴 207m이다. 걸음마다 출렁거리는 데다 다리 중간중간 수면이 내려다보이는 철망이 아슬아슬함을 더한다. 천장호엔 용과 호랑이의 전설이 깃들여 있다. 오랫동안 승천을 기다리던 황룡이 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긴 몸으로 다리를 뉘줘 사람을 구했고, 그 모습을 본 칠갑산 호랑이가 감복하여 후에 칠갑산을 수호하는 영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랑이 동상이 전설 속 황룡과 출렁다리를 굽어보듯 앉아 있다.

이용 시간 09:00~16:00 주소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4 문의 041-940-2723

16:00 고운식물원

고운식물원은 11만 평 부지에 8,000여 종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자갈길을 따라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야생화원과 조각공원, 봄철 화려함이 절정을 이루는 사계정원, 동산 위에 올라 올창한 수림과 만발한 꽃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 가지각색의 볼거리가 이어져 지루할 틈이 없다. 전망대에서 교목원까지 이어진 롤러슬라이드는 도보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선사한다. 월요일 휴무.📌

입장 시간 09:00~17:00

입장료 어른 8천 원, 어린이 5천 원

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041-943-6245



- 1 봄이면 야생화가 만발하는 고운식물원
- 2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장곡사
- 3 아찔함을 선사하는 천장호 출렁다리
- 4 부드러운 생선 살과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민물매운탕
- 5 면암 최익현 선생의 영정을 모신 모덕사

2nd Day



사우 추천 전국 맛집

달콤한 봄, 달달한 카페

나른한 오후, 점심 식사 후유증으로
춘곤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럴 때 간절한 것이 있다면 씩씩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가 아닐까.
단번에 잠을 확 달아나게 해줄, 봄날에
어울리는 달달한 카페를 소개한다.



제품평가팀 방영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몬스터 로스터스

원두를 제조하던 회사에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카페를 꾸몄다. 원두를 로스팅할 때 실제로 사용한다는 커피 관련 기계는 원두 공장을 연상케 해 더욱 신뢰가 간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시공한 덕분에 커피 가격도 착하다. 물론 커피 맛은 말할 것도 없다. '몬스터 로스터스'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피곤한 이들에게 활력을 선물하기 위해 '출근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 캠페인은 향긋한 커피로 아침을 열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매장 슬로건답게 커피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공간.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날에는 몬스터 로스터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

메뉴 아메리카노 3천 5백 원, 더치커피 4천 원, 카푸치노 3천 5백 원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9길 11 삼성에어텍
문의 070-8790-8780
영업시간 월~토 09:30~22:30, 일요일 13:00~22:00



RE개발1팀 송진아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음미하는 바나나트리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솜사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손으로 엄마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입가에 묻혀가며 먹던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이라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을 테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솜사탕을 좋아했다는 '바나나트리'의 정유경 대표는 길에서 보기 힘들어진 솜사탕이 아쉬워 '솜솔라떼'를 개발했다. 부드러운 라떼 위에 폭신한 솜사탕을 올려 여자 손님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솜솔라떼' 외에도 초코가루로 흙을 만들고 그 안을 바나나푸딩으로 메운 '화분팝'은 양증맞은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먹기 아까울 정도. 포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소중한 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참고해두자.

메뉴 솜솔라떼 6천 3백 원, 화분팝 6천 3백 원, 두유노라떼 6천 8백 원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59 **문의** 02-792-6050 **영업시간** 11:00~22:00



생산기술팀 한진희

꽃과 함께 즐기는 티타임 초콜릿플라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초콜릿과 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쇼콜라티에 언니와 플로리스트 동생이 합심하여 차린 카페로, 매장 입구에서부터 벌써 달달한 초콜릿 향과 향기로운 꽃향이 후각을 압도한다. 일본, 파리, 영국 등에서 공부한 언니 김윤정 씨가 자신 있게 내놓은 초콜릿드링크와 초콜릿아이스크림은 100% 카카오버터 커버추어를 사용하는 만큼 초콜릿 본연의 씹새래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초콜릿 음료 외에도 '오가닉헬시주스', '베리왕스퓨요거트' 등 상큼한 느낌의 메뉴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면 된다.

메뉴 초콜릿드링크 5천 5백 원, 베리왕스퓨요거트 7천 8백 원, 오가닉헬시주스 7천 8백 원
위치 부산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93 **문의** 051-626-2314 **영업시간** 12:00~23:00(일요일 휴무)

OE개발1팀 강희, 고객만족팀 한선아

조용히 커피 맛을 음미할 수 있는 플라잉도기

혼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카페를 물색 중이라면 '플라잉도기'를 적극 추천한다. 카페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한다는 주인장의 신념으로 취객과 어린이 손님(초등학생 이하)을 되도록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오롯이 커피를 즐기기 위한 이들이 즐겨 찾는다. 직접 로스팅하는 만큼 맛있는 커피가 이곳의 주메뉴이지만 집에서 담근 딸기시럽과 리얼 우유로 맛을 낸 '크림베리'를 먹기 위해 꽤 먼 곳에서까지 손님들이 다녀가기도 한다고, 어떤 음료를 마시든 아메리카노가 리필된다고 하니 마시지 않고 그냥 간다면 서운할 듯하다.

메뉴 아메리카노 4천 원, 핸드드립 6천 원, 크림베리 5천 5백 원 **위치**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합2길 27 **문의** 070-4401-4003 **영업시간** 10:30~22:30(주말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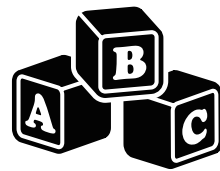
경영관리팀 이호재 과장

복합 문화 전시 공간 글레22

부산 송정에서 기장군으로 가는 길목을 지나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을 볼 수 있다. 카페이자 복합 문화 전시 공간인 '글레22'로, '부산다운 건축상'을 수상했을 만큼 외관이 독특하다. 1층에 위치한 카페를 찾으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데, 전시가 없는 날에는 하우스 웨딩을 진행하기도 한다. 카페에서는 직접 만든 베이커리류도 판매 중이다. 그중 '치즈모찌'는 인기가 워낙 좋아 늦게 가면 맛보기 힘들 정도라니 꼭 먹어보고 싶다면 조금 서두르는 편이 좋겠다.㉞

메뉴 아메리카노 4천 원, 카무치노 5천 원, 치즈모찌 3천 5백 원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암해안길 6 **문의** 051-721-1631 **영업시간** 09:00~21:00





장난감이라고 다 같은 장난감인가요? 똑똑하게 장난감 고르기

집 앞 마트에만 가도 수많은 장난감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장난감 중 자녀에게 무엇을 사주고 어떻게 함께 놀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는 아이를 위해 장난감 선택법을 알아보자.

아이를 키우는 장난감

건강한 승부욕과 순서를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

보드게임은 승부를 겨룬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재미가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에 효과 만점인 놀이가 바로 보드게임이다. 게다가 상대방과 함께하는 놀이이므로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나 한 번, 너 한 번' 하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게임에 저서 화가 나도 이를 다스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드게임은 종류가 다양해서 아이가 질리지 않고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주는 게임이나 추리력을 발휘해야만 미션을 달성하는 전략 게임도 있다. 그중에서 자녀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게임을 골라 같이 해보자.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샌드백, 권투 글러브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녀가 샌드백이나 권투 글러브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폭력성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난감들은 오히려 아이의 공격성을 낮추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친구들과끼리 심하게 몸을 밀치며 놀더라도 무조건 야단을 쳐서 통제하기에만 급급하지 말자.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는 성향이 강할 뿐이다. 그러니 꾸중보다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자. 자녀와 함께 권투 놀이를 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장난감

창의성을 저해하고 강압감을 느끼는 색칠 놀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색칠 놀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색칠 놀이는 다양한 색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눈으로 관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이 점을 배제하고 이미 그려진 윤곽선을 따라 색을 칠하게 하면 자녀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

게다가 아직 소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연령대의 아이는 선 밖으로 뺄뺄뺄하게 칠해진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자신감을 잃을 우려도 있다. 밑그림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후에 아이가 색칠 놀이를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자. 흰 도화지 위에 자신의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야말로 아이를 성장시킨다.



아이를 SMART하지 않게 만드는 스마트폰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자. 바쁜 부모를 대신해 베이비시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건이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전자 기기이다. 이런 전자 기기는 두뇌 발달을 저해할뿐더러 아이가 중독될 위험이 크다.

아이는 친구들과의 우정, 함께 지내는 부모, 주변의 환경 등을 통해 느끼고 배운다. 아이의 욕구에 너무나 신속하게 반응하는 스마트폰은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선을 한곳에만 고정시켜 생생하게 경험하고 배워야 것들을 놓치게 한다. 스마트폰 대신에 직접 손으로 쥐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아이와 함께하자.

세상의 모든 물건은 아이에게 훌륭한 장난감이 될 수 있다. 단, 부모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줄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법으로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건 어떨까?²⁰

Profile 정윤경

아동심리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BS 교육 프로그램 생방송 〈부모〉, 〈마더 쇼크〉, 〈정서지능〉 등에 출연. 저서로는 〈내 아이를 망치는 위험한 칭찬〉, 〈아이를 크게 키우는 말 VS 아프게 하는 말〉 등이 있다.

갈팡질팡하는 당신에게

적재적소 보험 상식

보험설계서는 꼼꼼히 정독

보험 가입 시 받는 약관은 너무 뻘뻘하고 복잡해서 읽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서만큼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신이 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잘 읽어도 가입한 상품에 대해 웬만큼은 알 수 있다. 보험설계서는 가입설계서, 가입자 유의사항, 상품설명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상품설명서는 자신이 든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과 권리 부분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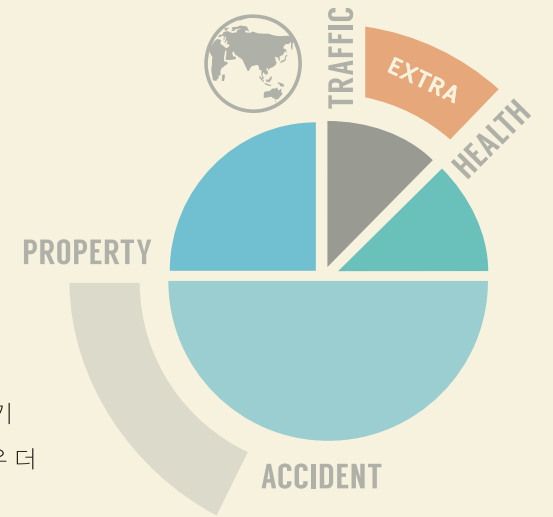
Profile 손교욱

現 OFP(국재공인재무설계사) 자격 인증자
現 2014~2015년 MDRT본부 Region D Chair (한국, 일본)
2009~2010년 MetLife MDRT회장 역임
2013~2014년 한국MDRT협회 11대 협회장 역임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수료

“돈도 없는데 보험 해지할까? 아니야, 막상 다치거나 아프면 어떡해.”
1년에 고작해야 한두 번 보험 혜택을 받는 이라면 부담되는 보험료와 불시에 닥쳐올 위험 사이에서 매번 갈등할 것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고민도 필요 없을 터. 똑똑하게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증권을 볼 때 놓쳐서는 안 될 사항

- ① 계약자: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②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③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만기, 상해, 사망 시 각각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을 경우 통상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상속인은 본인을 기준으로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가,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부모나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더 이상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며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된다.
- ④ 보험 가입 금액: 반드시 보장하는 금액은 아니며 실제 수령액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인 암보험이나 암 특약에 가입한 뒤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진단 자금으로 2천만 원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비나 입원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사례도 많다. 이럴 경우 암에 걸리면 2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진단자금 외에 수술비와 입원비 등의 특약사항 때문에 가입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설계서나 증권을 꼼꼼히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⑤ 보험 기간: 보장받는 기간이다. 종신이나 80세, 90세 등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 기간이 1년, 3년, 5년 등으로 짧게 되어 있는 특약도 있다.
- ⑥ 납입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 갹신형은 만기가 끝날 때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⑦ 지급률: 장애 상태,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 지급내용, 납입면제 사유, 기타 등등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다.



중복 상품 해지와 정기적인 리모델링

보험 상품 가입 시 중복된 상품을 어떻게 구분해낼까? 신뢰할 수 있는 담당 보험설계사가 나와 우리 가정의 보험 가입 현황을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관리해주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인 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보험증권을 전부 꺼내두고 A4 용지에 보장 항목을 하나하나 적는다. 그리고 각 해당 항목에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옮겨 적는다. 보장 항목은 먼저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상해보험금, 암 진단비, 암 치료비, 성인병 진단비(뇌출혈, 심근경색 등), 성인병 치료비, 입원비(질병/상해), 수술비(질병/상해), 기타(골절, 화상 등) 10개로 나뉜다. 그다음 보험증권을 한 장씩 보면서 그 항목에 맞는 보험 금액을 적어 나간다. 이 10개의 보장 항목에 누적 금액을 합산해나가다 보면 보장금액의 크고 작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험 가입내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중복 보험과 부족한 보험을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도 느낄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과 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3~5년에 한 번씩 점검해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인지 주기적으로 검토해보자.

보험료, 얼마나 내야 적당할까?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일반적인 가정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평균 8%, 최소는 6%, 최대는 10%까지 정하는 게 적당하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수입의 8~10%, 미혼 여성은 6%, 미혼 남성은 6~8% 수준으로 매월 부담할 보험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게 좋다. 대졸 초봉이 150만~200만 원 사이 인 20대 초·중반 미혼 여성이라면 적정 보험료는 수입의 6% 수준인 월 9만~12만 원이 적당하다. 만 일 소득이 이보다 낮다면 보험료도 더 낮추어 책정해야 하며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비슷한 조건의 남성이라면 이후 가장이 될 것을 감안해서 여성보다 조금 높은 8%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7년이나 어린 남성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저축성보험료

저축성보험인 개인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노후에 대비해 재테크의 일환으로 저축하는 상품이다. 그러니 좀 무리가 되더라도 월수입의 30%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보통 31세부터 60세까지 돈을 벌고, 이때 모아둔 돈으로 90세까지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와 같은 수준인 30%를 납입하는 것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현재 저금리 은행 상품과 금리를 비교해서 가입해도 좋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소득공제도 받고 경쟁력 있는 저축성 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의 금액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입에 맞게 적절히 정해야 하며 정해진 한도는 없다. 종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는데 정기보험은 보장 기간이 짧고 소멸성으로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하고, 종신보험은 사망 시까지 계속 보장해주기 때문에 비싼 편이다. 30대 중반 기혼 남성의 경우 자신이 받는 연봉의 5년분을 사망보험금으로 책정하면 적절하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보험 Tip

• 헬스 케어 서비스

요즘은 보험 가입에 따른 서비스도 선진화되고 있다. 헬스 케어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전담 헬스 플래너가 피보험자의 대형 병원 진료 예약은 물론 명의(名醫) 추천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명 의료 기관의 예약 대행 서비스까지 도와준다.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중대 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전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환자 이송 차량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의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마다 정해진 가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종신보험 주계약 1억 원 이상, CI 선지급보험 주계약 5천만 원 이상 가입 시 유효하며, 회사마다 가입 기준, 서비스명도 조금씩 다르니 보험설계사를 통해 문의하자.

• 자동차보험 가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자동차보험 내용 중에는 자손(自損)이라는 항목이 있다. 나와 내 차에 탄 사람이 다쳤을 때 받는 보상으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로 나뉜다. 유사한 개념이지만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해당 상해 급수별로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이 되는 반면, 자동차 상해는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 보상부터 위자료, 휴업 손해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종류도 많고 혜택도 다양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은 따로 있다.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자.



연령별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다고?

임신 23주, 태아보험

모든 보험은 선천성 이상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보험은 선천성 이상 질환까지 보장해준다. 단, 가입은 임신 23주 전까지만 가능하니 염두에 두자.

15세, 종신보험과 실비보험

자녀가 만 15세가 되면 종합보험 형태로 종신보험과 실비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이 좋다. 만 15세의 경우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 5만~10만 원 사이로 설계가 가능하며 실비보험은 과거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만기만 확인해보면 된다. 실비보험은 보완 개념으로 미리 들어놓는 것이 좋은데 이 연령대에는 특약 없이 저렴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1만 원 전후로 가입할 수 있다.

25세, 연금보험

사회 초년생으로 자신의 소득이 생기는 시기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힘들고, 점점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라 종신보험과 실비보험은 부모가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시기에 직접 연금보험에 가입해 일찍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30세, 종신보험 업그레이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소득수준이 올라가는 시기다. 결혼 후 자녀 출산, 부부의 노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른바 보장규모를 더 높이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이미 들어두었다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확대해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35세, 자녀 전용 투자형 저축보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소 안정된 시기이다. 이때 앞으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것에 대비해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투자형 저축보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45세, 부족한 보험 보충

부부의 노후 계획에 따른 부인의 연금 추가 가입, 노후 대비 저축 금액 키우기 등 45세 이후로는 개인마다 특성에 맞춰 조정해나가면 된다.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치아보험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60세, 실버보험과 간병보험

치매나 사고,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해주는 간병보험이 필요하다. 주로 61세에서 70세 사이에 가입해 80세에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실버보험에 가입하면 치매나 암은 물론 장례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¹⁰⁾

잘못된 의학 상식에 관한 오해 혹은 진실

잘못된 민간요법, 무심코 흘러들은 지인의 말까지. 우리의 건강 상식을 혼동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수히 많다. 먹어도 괜찮을까? 혹시 탈이 나지는 않을까? 고민인 넥센 사우들을 위해 준비했다. 평소 궁금했던 의학 상식을 함께 알아보자.



콜라겐이 많다는 돼지 껍데기, 정말 피부에 좋을까?

흔히들 탱탱한 피부를 위해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는 돼지 껍데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돼지 껍데기에 포함된 콜라겐은 신체에 흡수되지 않아 피부 개선과는 관계가 없다.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은 음식을 섭취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오히려 돼지 껍데기는 열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을 초래하고 여드름이 날 위험도 있다.



간지럽고 따가운 무좀에는 식초가 최고다?

무좀이 생겼다고 해서 식초에 발을 담그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약한 피부가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무좀균만 죽이면 무좀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무좀이 생기는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에 있는데 발끝까지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않아 생기는 것이다.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잘 순환하도록 해야 무좀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



장 청소는 꼭 해야 하나?

장 청소는 인위적인 자극으로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장내의 좋은 균까지 모두 사라지게 만든다. 묵혀 있던 숙변을 없애면서 일시적으로 장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습관적으로 장 청소를 하면 대장의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쉽다. 장 청소 대신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를 꾸준히 하면 깨끗한 장을 만들 수 있다.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과자가 당긴다.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 급격히 높아진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다시 떨어져 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저혈당이 생기고 두통이나 우울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반복해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당뇨병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가공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소금은 소화가 잘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 무리하게 소금을 꺼리는 사람들을 보면 소화기관이 약해진 데다 만성적인 위염,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도 높다. 즉,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음식은 적당히 소금 간을 해서 먹어야만 원활히 소화된다.



몸에 좋은 과일, 많이 먹을수록 좋다?

천연 비타민이 가득한 과일, 몸에 좋은 만큼 매일 먹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지나치면 과도한 당분을 섭취할 수 있다. 어떤 음식이든 양이 지나치면 신체에 해롭다. 적당량의 과일 먹기, 설탕이 들어간 과자와 빵 멀리하기,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기 등의 건강 습관을 길들여보자. 더불어 설탕이 다량으로 들어간 과일 주스는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자.❶



Profile 신우섭

오뎅이의원 원장.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약 없는
임상약학회' 회장이자
채식 의료인 모임
'베지닥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의사의 반란〉이 있다.

가꾸는 남자 전성시대

그루밍족 스타일 보고서

아직도 거뭇거뭇한 수염과 털털한 옷차림을 남성성의 상징이라 여기는가. 거울 속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예쁜 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괜찮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라는 넥센 사우 추천 그루밍 아이템을 소개한다.



마음을 흔드는 매력적인 향기 존 바바토스 아티산 향수

이성에게 호감을 주고 싶다면 매력적인 향기를 풍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09년 출시 이후 남성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 바바토스 아티산'은 상큼한 시트러스 향과 자연스러운 우디 향이 조화를 이루는 향수다. 묵직하지만 세련된 향이기 때문에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와 관계없이 소화가 가능하며, 고전적인 플라스크의 단순한 라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향수병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전기파트 김종철 과장, 특성연구팀 노국환, 전기파트 박장수, RE개발3팀 허진 선임연구원)

태풍이 휘몰아쳐도 꼬떡없다 크레이지독 파워홀딩 헤어왁스

우스갯소리로 “여자는 화장발, 남자는 머리발”이라는 말이 있다. 헤어스타일 하나로도 남자의 이미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다. 드라이어를 이용해 요리조리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왁스의 힘을 빌리자. '크레이지독 파워홀딩 헤어왁스'는 강력한 세팅력과 홀딩력으로 간단한 스타일링에도 장시간 모발을 고정해준다. 단백질 성분이 포함돼 가늘고 힘이 없어 쉽게 빠지는 모발에도 탄력을 주고 두껍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 탈모 걱정으로 왁스 사용을 꺼리던 이들도 안심할 수 있겠다.

(컴파운드개발1팀 이성필 선임연구원, 경영진단팀 이재훈 대리, 전기파트 하승위 대리)



때로는 꾸러기처럼 스냅백

따가운 봄 햇살로부터 피부도 지켜주고, 맛있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모자. 귀찮을 땀 기름진 머리카락을 가려줄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아이템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냅백의 인기는 여전하다. 사이즈 조절 부분이 스냅으로 되어 있어 머리 둘레가 넉넉한 이에게도 문제없다. 게다가 거꾸로 뒤집어썼을 때 '꾸러기력'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왕 스냅백에 도전한다면 칙칙한 컬러보다는 화사한 봄에 걸맞게 밝은 컬러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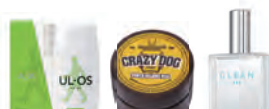
(특성연구팀 정창두, 전기파트 주용환 조장, OE개발2팀 진영상 주임연구원)



아빠 피부 No! 오빠 피부 Ok!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곧 용암을 분출할 것 같은 분화구 같은 모공과 군데군데 일어난 허연 각질, 신경은 쓰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때수건으로 쓱쓱 문지르는 것뿐이었다면 이 제품을 주목하자. 촉촉한 밀크 타입의 제형은 피부 깊은 곳까지 충분히 보습감을 제공해 얼굴을 매끈하게 가꿔주며, 잦은 면도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스킨과 로션을 합친 올인원 제품이라 세안 후 이것 하나만 열심히 발라도 충분히 피부 미남으로 거듭날 수 있다.

(RE개발1팀 변길재, 설계해석팀 송병철 주임연구원, 컴파운드개발2팀 최임철)



불호 사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사우들에게 '탐나는도다'에서 선정된 제품 중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크레이지독 파워홀딩 헤어왁스, 클린 에어 오데퍼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개별 연락 후 랜덤 발송됩니다.)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자의 자존심 ABC마트 인솔

평균보다 좀 작으면 어떡랴. 그러나 큰맘 먹고 산 청바지의 '핏'이 살지 않는다면, 마음에 둔 그녀와 당신의 키가 비슷하다면 때로는 편법도 필요하다. ABC마트에서 자체 제작한 에어쿠션 인솔은 장시간 신어도 피로감 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해 강한 충격에도 에어가 터질 일이 없어 안전하다. 기존의 3.5cm 높이에 1.5cm의 추가 깔창을 더해 무려 5cm나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사이즈에 따라서 덧댄 깔창을 잘라 사용할 수 있다니 기호에 맞게 사용하자.

(글로벌환경안전팀 김문채, RE개발1팀 이대호, OE개발2팀 조성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필립스 방수 코털제거기

숨 쉴 때마다 콧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숨바꼭질하는 코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상대를 민망하게 만든다. 그러니 외출 전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자. 필립스에서 출시된 방수 코털제거기 시리즈 'NT3000'은 불필요한 코털은 물론 귀에 난 털, 눈썹까지 부드럽게 제거해준다. 당기거나 뽑지 않는 보호 시스템으로 코털 제거 중 눈물이 찝끔 날 일도 없다. 100% 방수라 물로 세척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㉟

(재료연구팀 박다민, 제품디자인팀 신승태 주임연구원, 정보전략팀 전연희 과장)



다 썼다고 버리지 마세요!

1+1=0 노트

재생 용지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에 무해한 것만은 아닙니다. 종이만 재생 용지일 뿐 제본되는 과정에서 쓰이는 본드나 플라스틱 스프링은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니까요. 이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게 하려면 다 쓴 노트도 버리지 않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마지막 장을 넘긴 노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1+1=0 노트’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트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100% 재생 용지에 쿵기름으로 인쇄한 제품입니다. 물론 이 노트의 진가는 다 쓴 후에 발휘됩니다. 제본된 쪽을 중심으로 짧게 잘라 명함꼴이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때에 따라선 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부분은 최소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담은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이지요. 아, 그런데 왜 1+1=2가 아니라 0일까요? 재생 용지와 명함꽃이가 만나니 폐기물이 없다는 ‘0(zero)’의 뜻과 친환경적이고 멋스러운 디자인에 대한 놀라움의 감탄사 ‘0(oh)’의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올봄엔 멋진 1+1=0 노트로 책상 위에서 지구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Epilogu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tire.korea),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4월 중에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5월 15일까지 아래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 사보 담당자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사보에 숨겨진 헬로우넥센 로고를 찾아보세요!

사보 곳곳에 숨겨진 헬로우넥센 로고를 찾아 페이지를 모두 적어 보내주세요. (총 3곳, 대리점, 기상과학관, 최장기 넥센인)



참여해주신 사우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봄호 사보 제작에 도움 주신 사우들에게 ‘탐나는도다’에서 소개된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개별 연락 후 랜덤 발송됩니다.)



지난 호 정답

- 20p
- 29p
- 70p



퀴즈 당첨자


- 홍순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 박재용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4길
- 정경석 대구시 달성군 가창로
- 김세연 광주시 북구 경양로
- 황상건 경남 창원군 창녕읍 동탑길
- 김성훈 경남 창원군 창녕읍 척경비로
- 이호진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 백인숙 충남 논산시 해월로
- 유 정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12번길
- 유미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지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부드러운 비행


중대형 세단을 위한 프리미엄 타이어의 완벽한 진화

N FERA AU5

 탁월한 승차감 _ 비대칭 패턴디자인, 강성 최적 배분, 블록 균등 분할로 향상된 진동감소

 소음방지 기술 _ 그루브의 폭 설계 및 블록 균등 분할로 접지면 타이어 소음 최소화

 마일리지 및 연비향상 _ 균일 접지 최적화로 이상 마모 방지, 신소재 기술 적용으로 마일리지 향상, 에너지 손실 최소화

 프리미엄 패턴 디자인 _ 비발디 사계를 형상화하여 성능과 효율성, 품격의 극대화



넥센타이어 세계 최초
4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슬램 달성!



(위에서 얇게 세계 최초, 4대 디자인 어워드)

N FERA RU5 SUV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RU5

NEXEN 넥센타이어
빛길에 강한 타이어

www.nexentire.com 고객센터 ARS 1577-2781